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 05+06 통권 제65호 www.ksm.or.kr

화 보_ 북녘 민둥산,
녹색옷에 희망을 품다

표지_ 개성시 개풍동 개풍양묘장에서 자라는 어린 소나무 묘목을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작업원

온라인에서 만나는 훈훈한 시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블로그

싸이월드 사이좋은세상, 네이버 해피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블로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속을 살짝 들여다 볼까요?

cyworld 사이좋은세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일촌맺으세요~
지원사진과 북한현황 등 다양한 정보,
이벤트의 즐거움!
싸이월드 도토리로 후원이 가능해요.
카드포인트, OK캐쉬백, 상품권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http://town.cyworld.com/ksm

NAVER 해피빈

소식지와는 또 다른 공간!
긴급모금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생기가 넘치는 블로그
매월 15일 Give Day 캠페인, 네이버 메일마일리지,
콩저금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꽁짜로 기부할 수
있어요. 또 신용카드, 핸드폰은 물론, 한코인 등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http://happylog.naver.com/ksm7070

온라인에서 만나면~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고~ 다양한 북한 지원 모습을 보고,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100원=도토리1개=콩1개'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기부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후원방법 소식지 앞쪽 후원신청서의 빈칸을 채우고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태봉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보내온

'알뜰사랑'

○○초등학교

원주태봉초등학교에는 '알뜰시장' 이란 장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학교 장터에서 500원이하로 판매하고
나누어 쓰는 장터입니다.
지난 6월 5일, 이 학교 6학년(5개반 참여) 180여명이 '알뜰시장' 에서 모은
15만원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보내왔습니다.
최근 식량난속에 고통 받는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모금에 성금으로 보내온 것
이죠.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모습과 아이들을 보
고 우리아이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알
뜰시장' 을 통해 모은 돈이 비록 적은 돈이지
만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담겨있
어 더없이 소중해요. 하루빨리 북한아이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길 희망해요."
원주태봉초등학교 신경희 선생님이 말하는
'알뜰시장' 과 아이들의 마음은 북한동포들에
게 는 커다란희망과 사랑입니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 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7. 12. 3~ 2008. 12. 5
서울마포 우체국
제0456호

보내는 사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년 5·6월호 65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자원개발팀 (02)734-7070
1 2 1 - 0 5 0

독 자 엽 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고자 독자엽서를 실었습니다.
독자엽서에 의견 및 퀴즈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소식지나 저희 단체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 퀴즈 정답

후 원 신 청 서

이름		E-mail		직 업	
우편물받으실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이동통신 :		
회비납입방법	□ 자동이체	□ 무통장입금	□ CMS (아래 칸을 채워주십시오.)		
CMS 신청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약정액	□ 월 5천원 □ 월 1만원 □ 월 2만원 □ 월 3만원 □ 월 5만원 □ 기타 (월 원)				

본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회원으로 회비납부를 위한 CMS 신청에 동의합니다.

2008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풀칠하는 면

풀칠하는 면

풀칠하는 면

"후원자님의 사랑, 댓글타고 모니터 밖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와 싸이월드, 해피빈에 담긴 후원자님의 댓글, 또하나의 사랑입니다.

윤정님	나의 작은 힘도 보탬이 되었으면 (홈페이지)
이민영님	오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북한 동포를 돕고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그 마음이 되살아났네요.^^ (홈페이지)
이명혜님	언젠간 좋은세상 되길 바라며 봉사하는 사람들, 힘내시고 매일 응원할께요^^ (싸이월드)
꼬양이님	북한 아이들아 힘내!! 우리 언젠가는 꼭꼭꼭 통일이 될꺼야!!^^ (해피빈)
조형준님	적극적인 구호활동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홍륜경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부릉부릉님	으허~ 콩이 없어서 기부는 많이 못하지만 자주 들릴게요. ㅠ.,ㅠ (해피빈)
권상우님	청소년과 어린이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싸이월드)
알럽공주님	^^* 북한이 굶지 않고 행복하게 통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피빈)

Quiz

아직도 5~6월 북한에서는 보릿고개와 함께 시작되는 장마가 반갑지 않습니다.
보릿고개와 함께 시작되는 장마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1. 여름장마 2. 보릿장마 3. 배고픈장마 4. 슬픈장마

지난 호 퀴즈의 정답은 3번 '모내기 전투' 입니다.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차

03 권두언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04 화보 북녘 민둥산, 녹색옷에 희망을 품다
06 기고 남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08 연재 북에서 겪은 보릿고개, 보릿장마
10 6.15대회참가 금강산 6.15 민족통일대회, 그리고 남과 북 해외를 잇는 사람
13 보건의료지원 인구 33만 도시, 제대로 된 분만실 '절실'
14 어린이급식지원 후원자님의 사랑 싣고 희망트럭이 갑니다
16 고려인지원 14박 15일간의 볼고그라드 스케치
19 IT 교육지원 세 번째 찾은 중국 단동, 조금 더 가까이 온 북한
22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4 NGO 교실 "90분간 떠나는 북한나들이"
고양 성사고등학교 NGO교실 '북한알기 이모저모'
25 후원자 명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년 5·6월호 제65호 | **발행인** 강문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자** 2008년 7월 14일
주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디자인 · 제작 (주)컬처플러스 02-2264-9028

【고 문】 김수환 추기경, 김준곤 목사, 백낙환 이사장, 서영훈 이사장 【상임대표】 강문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성훈, 김영수, 김홍국, 박경서, 박경조, 박남수, 박원철, 박성민, 박준영, 손충열, 안성모, 영담, 윤덕홍, 윤여두, 윤정현, 이상준, 이영동, 이일영, 정대근, 최대석, 한지현
【감 사】 박문식 【운영위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6월 21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12주년을 맞았습니다. 12년 전인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시작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반세기동안 강고하게 잔존하여 온 남북 간의 냉전의식과 불신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동포애와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한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년 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몇몇 민간단체에서 시작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지원은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개발지원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남북 당국간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인도주의로 시작된 남북협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남북관계나 북한의 사정은 마치 12년 전 6월, 그때처럼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남한에서 새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대화는 커녕 오히려 더욱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마치 12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출범 시기를 연상케 합니다.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동포애'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인도주의'의 정신으로 대북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남북 당국간 대화분위기를 조성하였듯이 창립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고 새로이 이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7월초면 앞으로 2년간 우리 단체를 이끌어 주실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임원들이 새로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12기 활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12년전 척박한 조건에서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으로 민족화해와 인도적 대북지원운동의 물꼬를 틔었듯이 현재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선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과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

북녘 민둥산, 녹색옷에 희망을 품다

북한의 총 916만ha의 산림중 약 18%인 163만 ha가 황폐지로 주로 황해도 및 평안도 등 서부지역에 집중되어있다. (1999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중)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16도 이상의 경사지에 다락밭(뙈기밭)을 조성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화가 60%를 차지한다. 기타 연료용 땔감과 외화획득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를 꼽을 수 있다. 산림황폐화는 환경문제 뿐 아닌 현재 식량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007년 여름, 북한 수재피해처럼 토사유출과 농경지피해의 증대로 이어져 식량생산량 감소에 따른 식량난사태로 가중되기 때문이다. 식량증산으로 개간한 다락밭(뙈기밭)이 오히려 식량난이 되는 현실이 지금 북한의 모습이다.

지난 5월 13일, 개성시 개풍동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인 영담스님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170여 명의 남측대표단이 방문하여 북녘 산에 녹색옷을 입히기 위한 희망의 행사를 가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북녘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양묘장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시작의 단추를 누른 것이다.

1. 개풍양묘장 전경
2. 양묘장 모목파종을 설명중인 북측 작업원
3. 남북 대표단의 테이프 커팅식
4. 양묘장 온실내부
5. 개풍양묘장 현황을 설명중인 강승호 지배인
6. 남북 대표단의 기념식수
7. 양묘장 준공식에 참가한 대표단의 기념촬영
8. 양묘장 온실에서 싹튼 어린묘목을 유심히 보는 대표단
9. 준공식에 참가한 북측 양묘장 작업원들
10. 양묘장 온실과 태양광 발전 집광판

남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윤지현_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본 원고는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북한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 및 급식관리 지원방안 모색'의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또한 본 원고의 내용을 포함한 일부 연구결과는 2007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권 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영양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북한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20~34세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를 동일 연령대의 남한 대상자와 비교하였다. 북한의 해당 연령에 대한 영양평가 자료는 북한 정부가 UNICEF와 협력하여 발간한 영양상태 보고서인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Report of Survey Results에서 취하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한 남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자료로서, 신체계측 자료는 1998년 전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 와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직접 측정에 의한 인체치수 통계로부터 추정하였고, 빈혈 유병율 자료는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화일을 분석하여 구하였다.

영유아 영양불량률 비교

영유아의 성장평가 지수 중 월령대비 체중으로 저체중(underweight, low weight for age)을, 월령대비 길이(만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또는 신장으로 키 성장지연(stunting, low height for age)을 판정하였다. 영유아의 성장평가를 위해 NCHS/WHO 성장 참고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평가지수의 Z 값이 -2미만[측정값<(참고치 중앙값-2SD)]인 경우 영양불량으로 판정하였다.

북한 영유아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저체중 비율은 남아 여아 모두 약 15% 수준이었으나, 월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30~35개월 월령대에서는 30%에 이르는 수준을 나타내었고,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남한의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은 남녀 모두 모든 월령대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한과 북한 영유아간의 키 성장지연의 비율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북한의 경우, 월령에 따른 키 성장지연은 저체중 보다 만연되어 있었다, 12개월 미만의 북한 남아와 여아의 약 20%가 키 성장지연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여 54~59개월 유아의 경우 과반수가 키 성장지연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한 영유아는 5세 이하의 전 월령대에서 키 성장지연 비율이 3%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임기 여성의 영양불량률 비교

가임기 여성의 영양불량에 대해서는 에너지-단백질 영양불량과 빈혈을 판정하였다. 상완위(팔뚝둘레)가 22.5㎝미만인 경우는 에너지-단백질 영양불량으로 판정하였다.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12.0g/DL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판정하였다.

상완위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였을 때, 20~24세의 북한 여성의 경우 약 40%가 에너지-단백질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으며, 2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30% 이상이 영양불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1). 남한의 경우 높은 연령군일수록 영양불량의 비율이 감소하여 20~24세의 영양불량 비율은 10% 수준, 25~29세는 5%, 30~34세에서는 1%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20~34세의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연령군별 빈혈 유병율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북한 여성의 경우 연령군에 따라 34~36%의 대상자가 빈혈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남한 여성의 경우는 15~18%의 빈혈 유병율이 추정되어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남한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가임기 여성의 에너지-단백질 영양불량과 빈혈 유병율은 조사 대상자의 3명 중 약 1명이 영양불량으로 판정되는 수준으로 동일 연령 남한 대상자의 유병율과 비교하면 연령군 및 영양불량의 종류에 따라 약 2~21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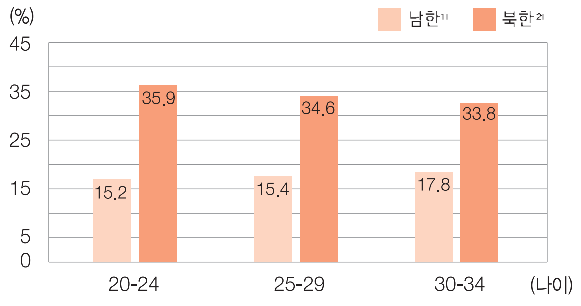
이러한 모성의 영양불량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북한 영유아의 영아초기 저체중과 키 성장지연의 비율이 높은 것이 모성의 영양불량에 따른 임신기간 중 태내의 영양상태 불량이 반영된 결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표 1. 남북한 20~34세 여성의 상완위로 판정한 영양불량[1] 유병율

나이(세)	남한[2](%)	북한[3](%)
20-24	10~25 (12.5)[4]	39.6
25-29	5	30.7
30-34	1~5 (1.5)[4]	31.7

1) 상완위 〈 22.5cm
2) Size Korea 보고서의 백분위 분포로 추정
3) 2004 북한영양조사보고서의 자료
4) 인접한 두 백분위수 사이에서 유병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값임

그림 1. 남북한 20~34세 여성의 빈혈 유병율[3]



1)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2) 2004 북한영양조사보고서 자료
3) 혈중 헤모글로빈 〈 12.0 g/DL

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불량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이상의 결과는 남한과 비교한 북한 영유아 및 모성의 영양상태가 정책적인 접근 없이 해소되기에는 어려운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일을 대비한 영양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비교자료로 쓰인 북한의 자료가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북한의 해당 연령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영유아 및 모성의 평균적 영양상태는 남한과 더욱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릿장마는 보리가 누렇게 무르익어서 탐스럽게 고개 숙여질 때인 육칠월 내리는 장마를 일컬어 부른다. 보릿고개 시기에 내리는 장마는 달갑지 않다. 그래서 보릿고개처럼 힘든 때여서 보릿장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요즘 들어서 며칠째 비가 때 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북에서 겪었던 보릿고개와 보릿장마 때가 생각난다”

북에서 겪은 보릿고개, 보릿장마

정민숙_ 새터민, 가명

북한에는 보릿고개와 보릿장마란 말이 있다. 보릿고개는 남북한 모두가 지난 60년대 까지 겪어야 했던 배고픔의 역사이다. 남한에서는 이미 보릿고개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북한에서는 요즘 들어 심각해진 식량난으로 보릿고개가 다시 온 듯 싶다.

보릿장마는 보리가 누렇게 무르익어서 탐스럽게 고개 숙여질 때인 육칠월 내리는 장마를 일컬어 부른다. 보릿고개 시기에 내리는 장마는 달갑지 않다. 그래서 보릿고개처럼 힘든 때여서 보릿장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요즘 들어서 며칠째 비가 때 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북에서 겪었던 보릿고개와 보릿장마 때가 생각난다.

북한은 지금 보릿고개 시기다. 북한에서는 량강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시기에 감자를 캐어 보릿고개를 보내곤 하였다. 북한에서 보리와 감자는 오뉴월에 보릿고개 먹거리를 대신하는 첫 햇곡으로써 가을철 낟알이 나올 때까지 북한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해주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이다.

그러나 그것도 농촌이나 시골에서 자기 텃밭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농촌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나 덕택을 입을 수 있지만 손바닥만 한 뙈기밭 하나도 없는 도시에서는 보릿고개가 왔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도 집에 바꿔치기라도 할 만한 옷가지나 여유라도 있으면 햇곡식 맛이라도 볼 수 있지만 70-80년대 북한농촌에서는 보리, 감자농사가 잘돼 일손이 모자라 보리, 감자 수확을 제대로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서 자란 우리들은 어느 누구 가져다주지 않으면 햇감자나 보리밥 맛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혹시 누가 먹으라고 조금 가져다 주면 그 맛이 별맛이여서 물릴 때까지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식량사정이 심각하게 열악하지 않았던 때에도 보리나 감자수확기가 오면 하루 밤사이에 누가 와서 가위로 보리이삭을 다 잘라 갈까봐 터전 앞에 볏짚으로 엮은 보초막을 만들어 밤을 새워가면서 온 집안식구가 등잔불 밑에서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렇게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고 걷어 들인 감자는 집안에 가져다 쌓아놓아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집 저집의 감자농사 얼마 했단 소문만 돌아도 어느 틈에 도적이 와서 훔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집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봄내 힘들게 가꾼 덕으로 굶지 않을 수 있고 얼마 수확했단 말도 입 밖에 내서는 안됐다. 남들이 다 굶는데 혼자 먹는 것도 죄악이어서 이기도 했다. 이것도 가을까지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양이여서 산이나 들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면 다 뜯어서 조금씩 섞어먹어야 얼마간이라도 견딜 수 있고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는다.

감자나 보리음식은 끈기가 없어 인차 배고프고 허기져서 쌀알이나 밀가루, 낟알을 조금씩 섞어서 먹어야지 걸어 다닐 힘이라도 생겨난다. 맨 감자만 오래 먹으면 얼굴이 붓는데 그래도 하루 세끼 다 먹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것도 농촌에서 살거나 도시에서 살아도 뙈기밭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지 노동자지구나 대도시들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보릿고개이다. 늘 도시사람들은 먹을 것에 쪼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오면 집안의 장롱에 아껴두었던 공업품이나 옷가지를 가지고 수 십리길, 수백리길을 걸어서 농촌이나 산골로 행방을 떠난다. 다행이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그나마도 좀 도움이 되어 조금이라도 더 얻어다 먹지만아는 사람 없는, 연고 없는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수십, 수백리길을 땀 흘리며 발 부르트도록 걸어갔어도 허탕치고 돌아오는 가여운 모습도 부지기수였다. 행여나 무엇이라도 얻어올걸 기대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 생각하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 흘리는 아낙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허리 잘린 남과 북은 작년에도 올해도 장마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미 보릿고개가 없어진지 오래다. 장마도 한철이란 말처럼 보릿장마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보릿고개와 보릿장마를 동시에 겪어야 하는 위기인 것 같다. 방송과 신문들을 통해 보면 심지어 보릿고개마저도 없는 것 같다. 벌써 봄이 오기도 전에 씨종자까지 다 먹어버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장들과 농가들이 수없이 많은데 무슨 보릿고개가 있겠는가? 배고픔에 겪어야 했던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모습 같아 가슴이 아프다.

거대한 대자연의 힘인 장마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순 없겠지만 보릿고개와 보릿장마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루빨리 보릿고개도 배고픔도 굶주림도 없는 따뜻한 한반도가 찾아오길 바란다.

•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 봉사 – 김경진

금강산, 6.15 민족통일대회, 그리고 남과 북 해외를 잇는 사람

손종도_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

산천은 의구했다. 금강산은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금강산

금강산 가는 길은 물론 멀었다. 7시 조금 넘어 서울역을 출발한 버스는 12시가 다 되어서야 동해선 남측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마침 고성군에서 열린 강원도민 체육대회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버스는 꼬불꼬불 우회도로를 한참이나 달려야 했다.

동해선 남측 출입사무소는 3년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과 북을 잇는 도로와 북측 출입사무소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역시 온정각 일대였다. 우선 김정숙 휴양소가 깔끔하게 단장을 하면서 외금강호텔로 바뀌어 있었다. 외금강 호텔 앞쪽으로는 금강산옥류관이 평양의 본점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온정각 일대에도 구룡마을 등 학생들의 단체 여행 숙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구룡마을 옆에는 이산가족면회소가 막바지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온정각에서 바라본 금강산은 금강산 그대로였다. 6월의 녹음을 자랑하는 봉래산이 거기에 있었다. 3년 6개월 전의 금강산은 설봉산이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힌 구룡연과 만물상, 그리고 함박눈이 내리는 삼일포는 남쪽에서 볼 수 없는 산과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1월 1일 새벽 해금강에서 맞이한 새해 첫 일출. 2005년의 첫 해를 금강산에서 맞이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2004년 12월 30일 새벽에 서울을 떠났었다.

이틀간 대회장에 걸릴 단일기 게양 [사진제공 – 6.15 남측위]

그럼, 지금 금강산에 가는 이유는 뭐지? 6월 15일~16일 이틀간 열리는 6.16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6.15 민족통일대회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6월 15일 오후 3시 50분쯤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남과 북 해외 대표단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당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돼 조금은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런 때문인지, 6.15 남측위 상임대표인 박낙청 남측 대표단 단장은 개막 연설에서 "오늘의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당국 대표단도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어김없이 열리는 것도 모두 우리 민간 운동의 뿌리 깊은 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민족통일대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발언자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특히 강조했다. 안경호 6.15 북측위 위원장은 "역사적 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것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통일운동의 환경과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백낙청 단장도 "현재의 남북관계가 일시적인 경색으로 끝날지, 아니면 천추의 죄과로 남을지는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여부에 달렸다"며 "겸허하면서도 넉넉한 자신감을 갖고 6.15 공동선언의 고수와 10.4 선언 이행을 힘차게 다짐하는 대회를 갖고자 한다"며 개막을 선언했다.

6월 15일,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남,북,해외 대표단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사진제공 – 6.15남측위]

하지만 남과 북의 만남에는 아직 우여곡절이 많다. 사전 문건 조율 과정에서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남쪽의 촛불집회에 대해 해외측에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곽동의 6.15해외측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남녘 각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야말로 오늘의 정세의 특징이며 그것이 남녘 시민들의 민심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남측 대표단 일부는 당초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행사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은 당일의 저녁 만찬과 다음날의 폐막식까지 이어졌다. 합의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항의와 해외측 대표단의 사과 등을 위한 협의로 저녁 만찬이 약 1시간 가량 늦어졌으며 다음날의 폐막식 역시 문건 조율 등의 시간이 많이 걸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지난 60여년간의 분단이 가져온 차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6일 오전에 둘러본 삼일포는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대회장 밖에서 열린 남,북,해외 사진전

그리고 남과 북, 해외를 잇는 사람

이번 금강산 방문에서는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15일 저녁 만찬 자리에서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일본 오사카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정갑수 코리아엔지오센터 대표와 식탁을 함께 했다. 2004년 10월 연해주에서 처음 만난 이후 4년만에 처음이었다.

정갑수 대표는 지난 1945년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세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민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자영업을 하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정대표가 실행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는 원코리아 페스티벌은 매년 10월 말 일본 오사카의 태양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재일코리안의 축제다. 지난해 〈하나되는 동아시아의 우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제22회 대회는 북핵위기로 말미암아 홍보 부족과 일본 우익의 위협 속에서도 3만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재일 코리안들의 도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원코리아 풍운록〉이라는 소책자로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행되기도 했다.

정갑수 대표는 남북의 균형을 지향하면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를 잇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일 조선적' 신분인 그는 이번 금강산 방문에도 남측 정부의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남쪽을 통해 금강산에 들어갔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금강산을 방문한 뒤 다시 남쪽으로 재입국한 사례는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통일의 과정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사 개, 폐막식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도 발표문과 조직 문제를 둘러싸고 참가자간 합의 도출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끈질기게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운동이며 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인구 33만 도시, 제대로 된 분만실 '절실'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포산원 지원사업 진행

손종도_ 남북협력사업 2팀, 부장

남포시 남포산원 공사현장

평양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남포시가 있다. 평양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항구도시로, 남포시와 그 인근은 북한의 중요한 공업지역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업경영방침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온 대안전기공장이 바로 옆 대안군에 자리잡고 있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있는 강서군과 천리마제강이 있는 천리마군이 근처에 있다. 남포시의 도시지역에는 약 3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최대의 항구도시이기는 하지만, 남포시는 다른 북한의 중소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70년대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들어 이곳 남포시 중앙에 있는 남포산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남포산원은 지난 1998년 남포직할시 중앙산과병원으로 설립됐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상 3차(도급 병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4년 인근의 대안군과 룡강군, 강서군, 온천군 등이 독립해 평안남도에 편입되면서 남포시도 평남의 한 개 시로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남포산원의 기능은 직할시 당시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전 남포직할시에 소속되었던 대안과 룡강, 강서, 온천, 천리마군 등의 산과 중심 병원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남포시의 산모뿐만 아니라 인근 군 지역의 군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이 이곳 남포산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분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포산원의 시설은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지하 한 개층과 지상 2개 층 등 3층짜리 한 개 동으로 구성된 남포산원은 당초 음식점으로 설계된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창고 및 기계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외래진료 부문, 지상 2층에는 분만실과 수술실, 입원병실로 구성되어 있다. 남포산원의 안혜경 원장에 따르면 이곳 병원의 병상 수는 120개로, 산과, 부인과, 여성건강관리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병원에는 의사 약 30명, 간호사 25명, 조산사 6명, 약제사 5명 등 총 71명이 일하고 있다는 게 안혜경 원장의 설명이다.

하루에 남포산원을 찾는 외래환자(임산부 등)는 평균 120명에 이르고 80명 정도가 상시 입원해 있다고 한다. 이 곳 산원에서는 하루 평균 10명, 한 달에는 200~300명의 분만 환자가 있는데,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때에는 1주일, 제왕절개를 했을 때에는 2주일 정도 입원을 한다. 북한의 제왕절개 건수는 우리보다는 훨씬 적어, 월 7~8건에 그친다는 게 안혜경 원장의 설명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현재 남포산원에 외래병동을 신축하고 이 병동 안에 분만실과 수술실 등을 꾸밀 계획이다. 이외 분만과 부인과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와 각종 기자재,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후원자님의 사랑 싣고 희망트럭이 갑니다

현지연_ 자원개발팀 간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보다 많은 곳에 급식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강도 희천시 고아원의 500명 아이들,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치원1,200명 아이들, 함경북도 회령시의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의 2,900명의 아이들 모두 후원자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1. 함경북도 남양로동자지구유치원에 도착한 급식물자
2. 함경북도 온성군온성읍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물자를 나눠 주는 모습

지난 4월 22일과 6월 16일, 19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들에게 급식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급식은 기존 지원하였던 평안북도 6곳의 시설, 룡천군육아원,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부모학원, 염주군양생원과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읍유치원과 남양로동자지구유치원 두 곳입니다. 특히 온성읍유치원과 남양로동자지구유치원은 이번에 처음 급식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메일진과 언론을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후원자님께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수재로 인한 곡물 수확량 감소와 국제사회 지원 감소, 국제 곡물가격 급등, 중국의 수출통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요.

중국의 수출통제는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중국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출규제를 작년부터 시작, 올해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급식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식량수출 통제 때문인데 중국에서는 쌀, 밀가루, 옥수수, 콩의 수출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국수와 찹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등도 국가허가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국가허가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유면 분유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의 원산지 증명서와 분유 만드는 과정의 보고서를 검역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증명서를 받고, 기술감독국에서 유전자 검사 증명서를, 포장지, 케이스 등도 위생검사 통과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남쪽 지방이 많고, 유전자검사는 4~5데 있는데 모두 대련, 케이스와 공장은 또 다른 지방이라 이 모든 서류를 갖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렇게 받은 국가 허가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100t, 1,000t 등 한번 생산량에 한에서만 가능하여 이후에 또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해야합니다.

중국은 세계2위의 외화보유국으로 굳이 수출을 하지 않아도 내수로도 충분히 이윤이 생겨 생산자들이 힘들여 국가허가증을 받으려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수출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밀가루도 대량인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한데 수출 세금이 25%나 되고,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라서 가격대비 지원 양은 예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급식 지원 지역

번호	지원대상	나이	인원	비 고
1	룡천군평안북도육아원	1~4	420	고아원
2	신의주육아원	1~4	220	고아원
3	신의주애육원	5~7	130	고아원
4	동림중등학원	7~16	470	고아원
5	삭주군청수이부모학원	7~16	123	부모 양육능력 부족 아동
6	염주군양생원		120	의지할 데 없는 장애인
7	온성군온성읍유치원	6~7	712	
8	온성군남양로동자구유치원	6~7	396	
합 계			2,591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2일과 6월 16일 평안북도의 6곳 시설, 1,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밀가루 25t, 설탕 2.5t, 콩기름 2t, 분유 200kg, 연필, 지우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원자님이 계셔서 아이들은 급식을 먹고 튼튼히 자라고 있습니다. 동림중등학원 벽에 붙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말처럼 후원자님이 계셔서 아이들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온성읍유치원과 남양로동자지구유치원 어린이 1,100명에게 급식물자를 처음 지원하였습니다. 이곳에는 국수2t, 빵 600개, 라면 2,150개, 우유가루 100kg, 공책과 연필, 신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곳은 고아원은 아니고 부모들이 일을 하는 동안 맡기어 놓는 종일반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평안북도 고아원보다는 간소하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로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급식은 트럭에 물자를 실어서 세관검사를 받고 각 지원시설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평안북도의 경우에는 '중국단동 – 북한신의주 – 각 시설',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중국도문 – 북한온성 – 각 시설', 자강도는 '중국도문 – 북한만포 – 희천시 – 각 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보다 많은 곳에 급식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강도 희천시 고아원의 500명 아이들,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치원 1,200명 아이들, 함경북도 회령시의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의 2,900명의 아이들 모두 후원자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요? 바로 하루 200원이면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일이 하루 200원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분유를 먹는 1~4살의 육아원과 탁아소에, 5~7살의 애육원과 유치원에, 성장기인 7~16살의 중등학원과 이부모학원, 소학교에 급식을 잘 지원하면 튼튼하게 자라서 이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반도의 희망이 됩니다.

하루 200원을 실천하는 것! 혼자해도 좋지만 친구와 가족, 직장동료와 하면 더욱 행복합니다. 지금통 비치, 월급의 1%나눔, 월급 원단위 절사, 바자회 등 여럿이 모이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 자리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슝~하고 날라 갑니다!

02)734-7070 / ksmseoul@ksm.or.kr

14박 15일간의 볼고그라드 스케치

정유정_ 해외사업팀 간사

우리에게 비춰지는 고려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흑백사진 속에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과 슬픔에 잠긴 어두운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강제이주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결코 순탄한 삶은 아이며 고단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2008년 4월 25일 모스크바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에 있는 내 모습이 익숙한 듯 낯설다. 그것은 아마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여행의 길이 아니라 2주간의 일정으로 볼고그라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러가는 첫 출장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낯설음과 설레임 때문일 것이다. 사무실 책상에서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볼고그라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설레이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보게 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낯설음이 조금은 나를 떨리게 하는 모양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상념들이 교차하고 지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 나보다 두 시간 뒤에 도착할 부장님을 기다리면서 공항 안을 찬찬히 둘러보자니 러시아수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이 든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공항 밖을 나와 매캐한 공기 속에 즐비해 있는 택시들을 보니 비로서야 내가 러시아에 왔구나하는 실감이 든다.

두 시간 뒤 도착한 부장님과 함께 국내선 볼고그라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택시를 잡고 1공항으로 이동하는데 택시값만 1800루블이다. 2공항에서 1공항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고작해야 20여분 거리인데 우리 돈으로 7만원을 넘게 부르니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러시아 물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이렇게 높게 부르지 않았는데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우리도 고려인도 모두 적응하기 힘들다는 부장님의 말씀이 모스크바의 메캐한 공기만큼이나 들이쉬기 힘든 현실이다.

볼고그라드로 단기 파견된 농업진흥청 박사님들 (좌부터 필자, 윤형권, 이한철)

이제는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다

주말에 여독을 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 볼고그라드 사무국으로 출근해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총무담당 김갈리나 선생님, 경제담당 류슬라바 선생님, 한글교사 류정숙 선생님, 통역 김표트르 선생님 등 사무실 식구들과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고 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서울 사무국과 볼고그라드 사무국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로 7회째 맞는 '고려인 축제' 주제와 장소를 현지 고려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농촌지역의 고려인들 자립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도시 고려인들을 위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연수생 모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하면서 피부로 가장 크게 와 닿은 부분은 볼고그라드 사무실과 한국과의 원활한 소통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상을 받았다.

볼고그라드 슬로두시노 채소온실 작업현장

모두들 조금씩 한국말을 알아 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의사를 완벽히 소화내기에는 여러모로 힘에 부치는 일이다. 한국과 러시아 사무실간의 사업현황과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양국 언어에 능통하면서 우리 민족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적 인프라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제대로 통한다면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수월하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에 부지런히 찾아봐야 할 일이다.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부지런히 배우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비록 시원스레 말은 통하진 않지만 고려인 1-2세대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다. 여기서는 한국말을 고려말이라고 하는데 북한말투와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가만히 들어볼라치면 참 재미있는 말이 많다.

"봄철~! 이 사람들 거저 잉게징게 실어오오?"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고려말과 러시아말이 섞인 것 인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 봄철~! 이분들 여기서 거기로 데려 갈까요" 란다. '잉게징게' 외에도 '살랑살랑', '서방갔냐', '가슬' 등등 어느새 내 입에도 붙어버린 재미있는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

뭉쳐야 산다

볼고그라드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들 뭉쳐야 산다. 또한 모두가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막힘없이 소화해낸다.

한글학교 교사인 류정숙 선생님은 생활 및 의료지원 상담에 한국에서 파견된 이들을 담당하고, 총무를 담당하는 갈리나 선생님은 통역과 사소한 행정처리를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슬라바 선생님은 현장과 사무실과의 조율, 거주등록담당과 운전기사의 몫까지 모두가

1인 3역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모른다면 이런 얘기가 비효율적으로 들리겠지만, 볼고그라드 외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한글학교나 생활 및 의료지원일 경우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제대로 통역을 하고, 요청이 들어온 지역까지의 이동 시 운전해야 할 사람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니 사무실 식구들이 총 출동이다. 볼스키 한글학교를 마치고, 레닌스키에 들러 생활지원을 하고 슬레니 악투바로 이동해서 의료지원을 마치고 볼고그라드로 돌아오면 어느새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다.
고작 한글학교 수업과 생활 및 의료지원, 하루에 처리한 일이 고작 세 개밖에 되질 않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가 지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빨리 가고 한국에서 처럼 일의 효율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항상 빨리빨리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의 극대화를 창출해야만 하는 한국 방식에 익숙해져있던 나로서는 영 마음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시간의 투자대비에 비해 생산된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국이었다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하루 만에 처리될 수 있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일의 속도와 진행이 느린 편이다.
한동안은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이 진척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돌아 왔다. 느리지만 이것이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곳이 바로 러시아, 이럴 때 외치는 말이 바로 "에따~러시아~!!" 일 것이다.

감성과 이성의 중심

우리에게 비춰지는 고려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흑백사진 속에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과 슬픔에 잠긴 어두운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강제이주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며 고단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들의 눈물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웃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꼭 그렇게 해보겠노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감성에만 몰두해있었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감성적인 것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러시아 상황 속에서 고려인들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고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역량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고려인의 존재가 이제는 정말 나와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 안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볼고그라드 사무실 식구들과 농업진흥청 박사님과 식사모습

세상사 다 좋을 순 없고, 또 나쁠 수도 없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앞으로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다시금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찾은 중국 단동, 조금 더 가까이 온 북한

이재승_ MDS테크놀로지 교육사업팀 과장

중국단동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북측교육생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났지만 교육을 통해 그들(북측교육생)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아울러 내부(북측)에 돌아가서 그 파급효과는 가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단동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7기 교육에 이어 북측 소프트인력을 대상으로 10주간 진행되는 제 8기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강식과 교육 진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MDS테크놀로지는 국내에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시스템이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된 장치를 말하며, 그 예로 로봇청소기, 내비게이션, 전기밥솥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도 임베디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전문 기업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산하 인재양성센터와 작년부터 인연을 맺어 북측 인력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임베디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발에서 교육장 도착까지

인천 공항에서 중국 대련(다롄)까지는 항공편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지만 대련에서 교육장이 위치한 중국 단동까지는 차량으로 약 3시간 3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대련에서 단동까지는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 거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동에 교육장이 위치한 까닭은 단동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이라 가깝고, 북측 인력이 나오기가 수월해서라고 보입니다. 단동으로 가는 차안에서 언젠가는 중

국이라는 제 3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나 평양 혹은 서울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어 봤습니다.

차량으로 단동까지 우리를 안내해주신 최기사님은 조선족으로 그 분을 통해 중국에 대해 여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련시는 인구가 약 500만 규모의 시로 중국에는 대련정도의 시가 약 70여개 있다고 합니다. 부산 정도의 시가 70여개 있다는 말인데, 모두 합해도 3억5천만명 밖에 안되더군요. 대련에 비해 단동은 중국 전체로 본다면 변방지역으로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라고 합니다. 대련에서 단동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우리나라의 터널이나 회전이 큰 굽은 길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고속도로 사이에 펼쳐진 옥수수 밭은 가히 엄청나다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삼 중국의 인구나 영토 규모에 또 한 번 놀랐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경험이었습니다.

중국 단동 vs 북한 신의주

중국 단동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변방 시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측의 신의주는 북측의 제2의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첫 느낌은 중국의 단동은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무한히 발전, 변화하고 있는 반면 신의주는 아주 조용하고 힘이 없이 시든 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단동의 밤은 환히 밝히는 네온사인이나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한 반면 신의주는 거의 불빛이 없는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인 6월의 단동에서는 작년 겨울과는 달리 압록강 주변의 대광장에서 불꽃놀이,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연날리기 등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보트를 탈 기회가 있어 북측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압록강에서 미역을 감으며 오후를 즐기고 있고, 어른들이 장기를 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 공원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잔디밭 같은 곳의 주변에 산책(?)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사뭇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손을 흔드니 북측 주민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왠지 모를 가슴 찡함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함께 교차하였습니다.

낯선 동포.. 하지만 한민족

이번 방문에도 북측 강습단과 함께 교육 개강식 전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첫 방문 때에는 난생 처음 북측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라 정말 긴장을 많이 하였고, 등에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만찬식은 북측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였는데 북측 음식도 접할 수 있었고, 북측 강습단 외에도 많은 북측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 식사 후 간단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노래방 기계뿐만 아니라 드럼, 전자기타 등 다양한 악기도 있어서 식당에 근무하는 북측 여성들이 직접 다양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노래였고, 전형적인 북측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는 북측에 온 느낌까지 들게 했습니다.

공식 공연 후에는 북측의 강습단 수강생 등 관계자들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주이고, 일상생활을 가사로 한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 때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들어만 보았지 직접 접해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당연함이라 봅니다.

이번 중국 단동 방문은 세 번째로 이미 이전에 북측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구성된 강습단원들과 북측 참사 및 개발단장 등 여러 북측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가 익숙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저에겐 북측 사람과의 만남이 조금 낯설 곤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받아온 이념 교육과 50년이 넘는 분단의 상황이 아마도 저의 마음까지 단절시켜 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고도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던 만남이었지만 헤어질 땐 아쉬움이 남는 건 왜일까요? 그건 바로 같은 동포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 마음속 아니, 부인하고 싶어도 변치 않는 것은 그들과 나는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3국인 중국에서 같이 호흡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길 기원합니다.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비전

제가 북측 사람과의 첫 만남 때 저만 긴장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습단원들 역시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개발단장이나 강습단을 인솔하여 온 참사의 경우는 이미 남측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이는 인재양성센터의 간사님이나 그 외 북측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습단원들의 경우 북측의 환경 즉, 자신들의 생활 터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소위 자본주의를 첫 경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의 환경에서 또 남측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으니 긴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첫 개강식, 환영 만찬식 때의 긴장감과 경계감이 10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의 수료식, 환송 만찬식 때는 정말 확연히 틀려 서로 편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났지만 교육을 통해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아울러 내부에 돌아가서 그 파급효과는 가히 클 것이로 보입니다.

작년에 교육을 진행한 강사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북측 강습단들의 이해능력과 개발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남측 개발자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인재양성센터로부터 북측 인력 교육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북측 인력의 IT실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내 모기업이 북측 인력을 활용하여 약 7년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섬유 등 제조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있지만 소위 IT나 임베디드 분야의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을 활용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인재양성센터처럼 북측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교육은 실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되고, 경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밑거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강식 후 기념촬영(필자 좌측에서 다섯번째)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월

23일

22일 –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부모학원, 염주군양생원 아동급식 지원(분유, 콩기름, 설탕, 학용품 등)

23일 – 남포시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을 위한 기술진 방북(6명)

25일 – 평양 순안 종축장 사료 120톤 지원 (인천-남포)

30일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 조성 협의, 마무리공사를 위한 대표단 및 기술진 방북(15명)

5월

6일 – 〈겨레의 숲〉 국민운동 선포식
– 4차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사례발표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7일 –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기술진 방북(6명)

13일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 준공식 대표단 170명 방북
– 제3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부업경제 : 쿠바와 북한의 사례〉

16일 –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협의를 위한 남측 대표단 방북(14명)
–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을 위한 말라리아 약품, 방역 차량 7대 및 방역기 등 지원(개성육로)
– 남포시 「남포 · 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대대리 협동농장 지붕재 및 부속 자재 지원(중국 단동)
– 평양 정성의학종합센터 수성페인트 10톤 지원

21일 – 4차 북한 농업협력사업 사례발표 (통일농수산사업단, 한민족복지재단)

22일 –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모금캠페인 시작

7일

16일

6월

2일

2일 – 남포시 남포산원 신축 자재 시멘트 118톤 지원(1차)
– 대북식량지원 촉구를 위한 사회 각계인사 긴급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19층〉

7일 – 고양성사고등학교 NGO교실 '북한알기 이모저모'

9일 – 인재양성센터 8기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강 (중국 단동 교육센터)

10일

10일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 주변 제방공사를 위한 시멘트, 철근, 경유 등 지원(개성 육로)
– 평양 적십자병원 이비 · 두경부외과 수술장 개보수 자재 및 남포시 남포산원 신축 자재 지원(2차)
– 제25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북한 협동농장의 운영과 농민 사경제 실태〉

11일 – 5차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사례발표 (유진벨재단)

13일 – 평양 적십자병원 이비 · 두경부외과 수술기기 목록 협의를 위한 개성 방북(5명)

15일

15일 – 6.15선언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참석 (금강산)

16일 –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부모학원, 염주군양생원 아동급식지원(밀가루 25톤)

19일 –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치구유치원 아동급식지원 (국수 2톤, 빵, 우유가루 등)

25일 – 평양 적십자병원 이비 · 두경부외과 수술장 개보수 자재 지원(3차) 및 건설 기술진 방북(6명)

익산 룡천지원사업후원회,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모금액 1,370,000원 전달

지난 6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평안북도 룡천지역을 후원하고 있는 '익산 룡천지원사업후원회'에서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모금액 1,370,000원을 사무처를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은 익산에서 룡천육아원 후원을 처음 제안하고 시작한 최양옥(익산시청 새익산건설단 팀장) 후원자님이 직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익산 룡천지원사업 후원회는 작년 북한 수재피해동포돕기 모금에도 1,250,000원을 모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익산 룡천지원사업 후원회 후원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후원자님들의 마음 그대로 북녘동포에게 전하겠습니다.

"90분간 떠나는 북한나들이"

고양 성사고등학교 NGO교실 '북한알기 이모저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6월 7일(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성사고등학교에서 학교 전교생과 함께하는 NGO교실 '북한알기 이모저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50여명의 학생들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간 진행된 NGO교실은 교내 방송반에서 촬영, 전 학급 교실 모니터를 통해 생방송 되었답니다.

이번 NGO교실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소장한 북한의 화폐, 우표, 교과서, 노트 등 다양한 북한 물품을 시청각실 앞 복도에 전시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북한의 물품인지라 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인 박진식 선생님의 소개와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소개, 통일영상상영, 북한알기, 기부문화 등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된 90분간의 시간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돌발퀴즈'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퀴즈 정답 선물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죠.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와 피자쿠폰, 북한 샤프펜슬을 상품으로 걸고 학생들을 유혹(?)시키는데 성공한 '돌발퀴즈'는 90분간 중간 중간 학생들의 시선과 집중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알기'에서는 북한의 대학과 교육제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시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득 한 학생들의 시선에 북한의 교육은 생소하지만 많은 공감을 형성한 듯 했습니다. NGO교실이 끝나고 한 여학생은 "북한에도 고3병과 같은 입시스트레스와 특목고, 과외 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라며 소감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1. 고양성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NGO교실
2. 1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90분
3. 시청각실 입구에 비치된 북한물품을 보는 아이들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3, 4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북녘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64호(3,4월호)에 게재된 후원자 명단 중 1월 명단은 3월 명단이 잘못 게재된 것입니다. 이에 1월 명단을 다시 게재합니다.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확인하겠습니다.

1월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무아나	20,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20,000
(주)성신서보	100,000
(주)세신산업개발	100,000
(주)스테텍스박이화	10,000
(주)신도데이타통신	10,000
(주)여행이야기	10,000
(주)에이스알로	10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주)창이엔지	10,000
(주)코러스섬유	100,000
(주)한얼	50,000
감복조	5,000
강경숭	20,000
강경헌	10,000
강남순	10,000
강낙호	10,000
강무구	30,000
강보향	10,000
강선미	5,000
강성구	10,000
강순기	10,000
강 신	10,000
강영수	100,000
강옥경	10,000
강원호	20,000
강익범	10,000
강인호	100,000
강정미	5,000
강정음	10,000
강종석	10,000
강창식	5,000
강채원	10,000
강태임	5,000
강태호	20,000
강필회	5,000
강현주	10,000
강혜경	10,000
고권석	20,000
고기철	10,000
고봉균	10,000
고석주	10,000
고세령	10,000
고수석	10,000
고영록	10,000
고이석	30,000
고재성	10,000
고정환	10,000
고희진	10,000
공은영	10,000
곽인철	10,000
구국무	5,000
구수영	10,000
구영주	10,000
구은경	10,000
구종무	10,000
권병오	10,000
권숙희	5,000
권승언	10,000
권오구	30,000
권오근	20,000
권오윤	10,000
권지숙	20,000
권지현	10,000
권혁무	5,000
권혁신	1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금강LEB	50,000
금휘식	30,000
길기관	10,000
김갑수	10,000
김갑식	30,000
김강민	30,000
김강윤	10,000
김경덕	10,000
김경재	10,000
김관식	20,000
김광식	10,000
김광아	20,000
김광신	10,000
김구철	10,000
김궁지	10,000
김귀옥	10,000
김근우	30,000
김금순,이효순	50,000
김금예	5,000
김금평	25,000
김기용	30,000
김기원	10,000
김기은	50,000
김기판	10,000
김길자	20,000
김길철	5,000
김나홍	5,000
김남용	120,000
김 딩	10,000
김대관	10,000
김대성	30,000
김대영	10,000
김대영	5,000
김덕수	10,000
김도균	20,000
김도식	10,000
김도종	20,000
김도형	10,000
김동광	10,000
김동근	10,000
김동현	10,000
김동환	30,000
김두석	20,000
김두윤	20,000
김만수	20,000
김만신	5,000
김만태	5,000
김백기	10,000
김병언	10,000
김병호	30,000
김무원	500,000
김무홍	10,000
김미수	10,000
김미자	10,000
김민성	10,000
김민영	10,000
김민제	10,000
김민주	10,000
김방균	10,000
김병구	5,000
김병균	10,000
김병균	10,000
김병수	10,000
김병순	50,000
김보연	5,000
김봉균	10,000
김삼수	5,000
김정근	20,000
김정길	10,000
김정득	20,000
김정범	30,000
김정식	10,000
김정운	5,000
김석신	10,000
김석향	50,000
김선녕	5,000
김선영	10,000
김설자	10,000
김성봉	40,000
김성오	10,000
김성재	20,000
김성철	10,000
김성희	5,000
김세권	5,000
김수희	10,000
김순옥	10,000
김순한	10,000
김순응	10,000
김승권	10,000
김신희	10,000
김양수	10,000
김언숙	30,000
김영래	20,000
김영무	20,000
김영미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숙	10,000
김영실	20,000
김영주	10,000
김영표	10,000
김영호	5,000
김옥영	10,000
김완배	20,000
김용덕	30,000
김용희	5,000
김우영	20,000
김원국	10,000
김유경	5,000
김윤기	10,000
김윤신	10,000
김은경	3,000
김은경	3,000
김은경	10,000
김은숙	5,000
김은영	3,000
김은성	5,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응정	10,000
김의곤	10,000
김인선	10,000
김일성	100,000
김정언	5,000
김정윤	10,000
김재광	5,000
김재옥	5,000
김재철	10,000
김재혁	10,000
김재호	10,000
김 정	10,000
김정미	10,000
김정순	10,000
김정환	30,000
김정응	10,000
김제호	10,000
김종구	5,000
김종구	10,000
김종숙	5,000
김종순	10,000
김종식	30,000
김종주	10,000
김종헌	10,000
김주영	50,000
김주태	5,000
김주학	20,000
김주호	30,000
김순무	10,000
김순석	20,000
김순현	100,000
김숭수	10,000
김숭호	30,000
김신경	10,000
김신백	10,000
김신현	9,000
김신현	10,000
김창곤	10,000
김창언	10,000
김태석	10,000
김태순	20,000
김태우	10,000
김학경	10,000
김학신	10,000
김학신	10,000
김해숭	5,000
김현성	10,000
김현수	5,000
김현순	30,000
김현신	10,000
김현철	10,000
김형문	50,000
김혜순	10,000
김혜종	10,000
김호순	20,000
김호일	20,000
김홍신	10,000
김화태신부	10,000
김효성	10,000
김희숭	10,000
나병만	10,000
나선길	10,000
나원언	15,000
나은우	20,000
나종문	20,000
남경식	10,000
남기순	5,000
남정돈	10,000
남세현	5,000
남상현	10,000
노관숙	5,000
노금호	10,000
노성호	30,000
노인선	20,000
노정환	20,000
노제승	10,000
노순봉	5,000
노형래	10,000
도재영	10,000
류병욱	10,000
류용성	5,000
류이근	10,000
류재윤	10,000
류현선	10,000
목주승	5,000
문경순	5,000
문근영	5,000
문근재	5,000
문미영	5,000
문병혁	5,000
문성권	10,000
문수성	50,000
문영식	5,000
문용식	10,000
문은철	10,000
문재석	20,000
문정호	10,000
문종용	10,000
문홍주	10,000
민여경	10,000
민현주	10,000
박길식	10,000
박기호	20,000
박남용	50,000
박덕선	10,000
박덕환	10,000
박동우	5,000
박동호	50,000
박무영	10,000
박문송	10,000
박문식	30,000
박미란	10,000
박미화	10,000
박민선	50,000
박병무	10,000
박병섭	30,000
박병우	10,000
박복영	10,000
박정왕	10,000
박정욱	50,000
박정일	20,000
박정현	10,000
박선숙	5,000
박성기	20,000
박성순	10,000
박성찬	10,000
박수희	10,000
박 순	10,000
박순성	10,000
박애스더	50,000
박영곤	10,000
박영근	20,000
박영철	10,000
박요순	10,000
박용권	20,000
박우경	10,000
박원규	10,000
박유중	10,000
박은하	5,000
박의용	10,000
박인숙	10,000
박일수	5,000
박재묵	10,000
박재원	10,000
박정근	50,000
박정숙	30,000
박정숙	10,000
박정자	10,000
박종길	10,000
박종록	10,000
박종윤	20,000
박주현	5,000
박신권	10,000
박징자	20,000
박찬호	10,000
박현식	100,000
박형근	10,000
박형숭	10,000
박혜영	50,000
박희순	10,000
박희윤	10,000
반지범	10,000
밝은세상	10,000
방양수	10,000
방재만	5,000
방순일	10,000
배대환	10,000
배동웅	10,000
배병용	10,000
배수영	20,000
배은혜	5,000
배향란	20,000
백낙서	10,000
백두선	10,000
백재구	20,000
백찬현	100,000
백학순	5,000
변선애	10,000
변신옥	5,000
봉미란	10,000
사과들농수산	13,055,580
서기원	30,000
서남주	10,000
서동화	20,000
서병호	10,000
서봉은	5,000
서성길	10,000
서영학	10,000
서정숙	10,000
선영숙	5,000
성낙순	5,000
손경임	10,000
손경환	10,000
손광우	20,000
손덕현	20,000
손민구	5,000
손영주	10,000
손신재	10,000
손현용	10,000
송경민	20,000
송날룡	10,000
송두헌	30,000
송병석	10,000
송정용	10,000
송정유	10,000
송선주	10,000
송영완	10,000
송운학	20,000
송재석	10,000
송재은	1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송정배	10,000
송정호	10,000
송지섭	10,000
송태규	10,000
송현태	30,000
신기호	10,000
신기윤	10,000
신대걸	10,000
신동석	10,000
신정문	5,000
신수억	10,000
신순임	5,000
신영운	50,000
신용철	10,000
신인수	6,000
신순석	10,000
신신현	10,000
신신호	20,000
신철호	10,000
신현창	10,000
신홍수	20,000
심경란	20,000
심말선	10,000
심숭식	10,000
심향정	10,000
심현주	10,000
안병화	20,000
안정화	5,000
안세봉	20,000
안승자	10,000
안영숙	5,000
안정덕	5,000
안종금	5,000
안종줌	5,000
안순정	40,000
안형재	100,000
양근성	10,000
양무수	10,000
양미화	5,000
양순환	10,000
양우성	10,000
양유정	2,000
양인보	20,000
양주용	10,000
양신선	5,000
양필녹	10,000
양해순	10,000
어용칠	5,000
엄기철	10,000
엄용수	20,000
엄학수	10,000
에코시스템(주)	20,000
염동현	10,000
염 칠	30,000
영농조합법인무궁축산	50,000
오경일	20,000
오두영	10,000
오반순	30,000
오문택	50,000
오선언	5,000
오성수	20,000
오세호	10,000
오수경	5,000
오수형	30,000
오옥자	5,000
오정신	20,000
오창욱	10,000
오순희	10,000
오형석	20,000
오혜근	5,000
왕정찬	5,000
왕신호	10,000
우문식	3,000
우성란	10,000
우성호	10,000
우종호	10,000
우혜신	5,000
원동오	10,000
원종남	10,000
원효신	10,000
유남길	20,000
유병희	5,000
유성식	10,000
유승주	50,000
유승철	10,000
유시민	10,000
유윤숙	5,000
유인숙	10,000
유재언	10,000
유종구	10,000
유종석	10,000
유지수	8,500
유신정	10,000
유평종	10,000
유한선	20,000
유기영	5,000
유광운	5,000
유남희	10,000
유두희	5,000
유두형	10,000
유미화	10,000
유방원	30,000
유병현	10,000
유서영	5,000
유송림	50,000
유수신	20,000
유영복	5,000
유재희	10,000
유종식	10,000
유종원	10,000
유창선	10,000
유창원	10,000
유창하	10,000

회비납부명단

유효칠	20,000
이김산	50,000
이강기	50,000
이강희	5,000
이경록	10,000
이경미	5,000
이경재	10,000
이경희	10,000
이광재	10,000
이광희	30,000
이국림	5,000
이규봉	10,000
이규호	10,000
이근덕	30,000
이근배	10,000
이근택	60,000
이근행	10,000
이금수	20,000
이기원	10,000
이기원	10,000
이기호	10,000
이기화	10,000
이길호	5,000
이남재	5,000
이남칠	5,000
이대식	10,000
이대호	10,000
이동영	10,000
이동원	10,000
이동호	10,000
이병수	5,000
이목희	10,000
이무칠	20,000
이미례	5,000
이빈싱	10,000
이빈영	10,000
이병교	10,000
이봉윤	10,000
이싱재	10,000
이싱윤	10,000
이석용	10,000
이석우	10,000
이 선	20,000
이선규	10,000
이선주	10,000
이선호	5,000
이성수	5,000
이성주	10,000
이성주	10,000
이성칠	10,000
이성호	5,000
이세순	20,000
이숙자	5,000
이숙희	5,000
이순칠	10,000
이승곤	20,000
이승반	10,000
이승영	20,000
이승우	10,000
이승우	20,000
이승현	20,000
이아미	10,000
이애희	20,000
이언하	5,000
이영주	10,000
이옥순	10,000
이용규	10,000
이용석	10,000
이용암	5,000
이운학	10,000
이원빈	5,000
이원보	10,000
이원욱	5,000
이유화	10,000
이은싱	10,000
이은희	5,000
이응세	10,000
이인덕	10,000
이인배	20,000
이인수	10,000
이일영	50,000
이상백	20,000
이상욱	5,000
이상원	5,000
이재학	10,000
이재희	5,000
이 싱	20,000
이싱수	10,000
이싱숙	10,000
이싱식	50,000
이싱주	10,000
이싱현	10,000
이싱희	5,000
이종권	20,000
이종병	10,000

이종무	10,000
이종빈	10,000
이종석	30,000
이종안	20,000
이종열	20,000
이종주	5,000
이순동	10,000
이순희	10,000
이지영	10,000
이지원	20,000
이지하	5,000
이신권	10,000
이신숙	5,000
이지남	10,000
이찬우	10,000
이찬웅	10,000
이창재	10,000
이중묵	5,000
이지석	3,000
이씰원	10,000
이현석	10,000
이현우	20,000
이현주	20,000
이혜란	5,000
이혜옥	10,000
이혜원	10,000
이혜싱	5,000
이호싱	10,000
이홍돈	10,000
이홍순	20,000
이회택	50,000
이효선	5,000
이희원	5,000
이희종	5,000
임기재	10,000
임광호	30,000
임미자	5,000
임병성	10,000
임병수	20,000
임병칠	10,000
임싱원	20,000
임석재	10,000
임선영	10,000
임성수	10,000
임세신	10,000
임완빈	20,000
임인기	10,000
임상원	5,000
임재빈	10,000
임싱애	10,000
임종석	30,000
임종해	10,000
임창영	5,000
임순수	20,000
상광순	10,000
상길수	5,000
상문호	5,000
상빈화	30,000
상사익	10,000
상선영	10,000
상순천	10,000
상영날	30,000
상영순	10,000
상용윤	10,000
상원석	10,000
상유신	5,000
상재영	10,000
선날수	10,000
선미란	5,000
선병네	10,000
선싱순	100,000
선성관	10,000
선성희	10,000
선애숙	10,000
선영미	10,000
선영일	10,000
선용운	10,000
선일순	10,000
선싱수	10,000
선싱희	5,000
선향이	10,000
선혜린	5,000
선 윤	5,000
싱경남	10,000
싱경옥	3,000
싱경화	5,000
싱경윤	10,000
싱광언	100,000
싱근영	10,000
싱기석	5,000
싱기언	20,000
싱대영	30,000
싱두빈	10,000
싱란아	10,000
싱미란	10,000

싱미영	10,000
싱 빈	5,000
싱싱무	10,000
싱석반	10,000
싱성윤	10,000
싱수근	10,000
싱수현	5,000
싱언실	10,000
싱언웅	10,000
싱언순	10,000
싱언호	20,000
싱영기	10,000
싱영칠	10,000
싱예리	10,000
싱원오	10,000
싱은신	10,000
싱의화	20,000
싱인성	10,000
싱재빈	10,000
싱재원	10,000
싱재화	250,000
싱싱네	10,000
싱종현	10,000
싱주영	5,000
싱지현	10,000
싱신영	10,000
싱신옥	10,000
싱찬광	10,000
싱천우	10,000
싱한성	5,000
싱해문	10,000
싱홍싱	10,000
싱회빔	10,000
조김식	10,000
조반용	5,000
조매경	5,000
조병재	5,000
조석희	10,000
조선영	10,000
조선옥	10,000
조성규	10,000
조성숙	10,000
조성호	20,000
조신행	5,000
조영국	5,000
조영싱	10,000
조영석	10,000
조영식	10,000
조용신	10,000
조용학	10,000
조 유	5,000
조유곤	10,000
조재호	10,000
조싱순	10,000
조순혁	10,000
조숭식	10,000
조창식	10,000
조네현	5,000
조한빈	10,000
조한빔	10,000
조 현	5,000
조형순	20,000
주관수	10,000
주모미	5,000
주선용	10,000
주재열	10,000
주현기	10,000
지선경	5,000
지용수	50,000
신싱호	10,000
신파랑	10,000
지익수	10,000
지현애	10,000
창제한의원	100,000
채병칠	10,000
채현숙	5,000
천봉실	10,000
죄경인	10,000
죄병숙	100,000
죄빔신	100,000
죄병류	10,000
죄병희	20,000
죄싱구	10,000
죄싱윤	10,000
죄세문	20,000
죄수자	10,000
죄수신	5,000
죄순옥	10,000
죄승렬	10,000
죄승호	10,000
죄승호	10,000
죄영림	10,000
죄영순	5,000
죄영희	10,000
죄우싱	10,000

죄유식	5,000
죄은서	5,000
죄싱길	30,000
죄싱희	10,000
죄칠영	10,000
죄네자	5,000
죄현숙	10,000
포항수산(자) 이응대	20,000
하미싱	10,000
하승창	20,000
한강아	3,000
한덕선	20,000
한덕희	15,000
한동휘	30,000
한두희	10,000
한방남	10,000
한싱각	10,000
한싱규	5,000
한성희	5,000
한순호	5,000
한승엽	10,000
한유구	10,000
한인숙	5,000
한싱화	10,000
한신옥	5,000
한창현	5,000
한영순	20,000
한용운	5,000
허남순	5,000
허양선	10,000
허원종	10,000
허은이	10,000
허 일	10,000
허효일	10,000
현순복	5,000
현유숙	10,000
현유식	10,000
현유실	10,000
현유애	10,000
현종유	40,000
호영신	15,000
홍구표	30,000
홍기호	10,000
홍란희	5,000
홍변기	10,000
홍병석	5,000
홍미옥	30,000
홍싱운	5,000
홍성기	10,000
홍성복	10,000
홍숙희	20,000
홍원식	20,000
홍은미	5,000
홍 의	10,000
홍제표	10,000
홍순석	10,000
홍지흔	10,000
황게언	100,000
황귀남	10,000
황대칠	10,000
황병씰	10,000
황병네	10,000
황성주	30,000
황재성	10,000
황창규	10,000
JINIONI IMEI	5,000
LGCNS	656,000

볼고그라드

강대규	10,000
금동원	30,000
김선경	10,000
나선경	5,000
박기영	10,000
박인순	20,000
방칠호	20,000
신혜싱	10,000
심현용	10,000
이동현	10,000
이수원	10,000
이한결	10,000
싱경런	10,000
싱극칠	10,000
홍상현	10,000

아동급식

강대현	20,000
권영운	20,000
김반호	20,000
김언욱	30,000
김싱미	10,000
김싱은	10,000
김네평	10,000
문주성	10,000

박싱일	10,000
박재완	60,000
방현옥	10,000
서희순	10,000
양 권	20,000
유언미	10,000
이덕빈	50,000
이병신	10,000
이싱학	20,000
상빔식	10,000
싱동혁	10,000
싱싱희	5,000
싱수순	5,000
싱일영	20,000
조은싱	30,000
조싱아	20,000
신관스님	5,000
한국생협연합회	5,228,000
한국화학연구원	80,000
현종스님	10,000
화성스님	50,000

룽천육아원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유)스마일기획건설	20,000
강동혁	5,000
강병수	10,000
강신우	5,000
강칠희	10,000
강네순	20,000
강혜영	5,000
고영삼	5,000
고신규	10,000
곽영한	10,000
국 혁	5,000
권의싱	10,000
권네영	10,000
권형렬	5,000
김강희	5,000
김기네	5,000
김경녀	10,000
김 구	10,000
김규신	5,000
김기곤	5,000
김기동	10,000
김대기	10,000
김동림	20,000
김동우	50,000
김두화	10,000
김문혁	10,000
김봉규	10,000
김삼택	5,000
김선리	5,000
김성두	10,000
김성네	10,000
김수경	10,000
김수복	10,000
김순우	10,000
김승화	5,000
김영규	20,000
김영균	5,000
김영근	10,000
김영윤	10,000
김완수	10,000
김용주	10,000
김유칠	10,000
김은재	10,000
김응곤	10,000
김인기	10,000
김재순	5,000
김재홍	10,000
김싱기	10,000
김싱인	10,000
김종비	5,000
김종성	10,000
김종열	5,000
김종왕	5,000
김신관	20,000
김신네	10,000
김창영	10,000
김네화	5,000
김혁제	10,000
김형순	20,000
김호식	10,000
나싱현	10,000
남궁신석	5,000
남싱기	10,000
남칭강	10,000
류희웅	10,000
문용식	5,000
문칠성	5,000

문네화	5,000
빈중기	10,000
박귀순	10,000
박내현	10,000
박반승	10,000
박미라	5,000
박미숙	10,000
박봉수	10,000
박용수	5,000
박용주	5,000
박유선	10,000
박유윤	10,000
박인곤	10,000
박종선	10,000
박종호	20,000
박종호	10,000
박주화	5,000
박 찬	10,000
박찬빈	10,000
박찬식	5,000
박네신	10,000
박응열	10,000
배동한	10,000
배선규	10,000
배성희	20,000
빙인선	5,000
석싱근	10,000
싱두경	5,000
싱완호	5,000
수병재	5,000
손삼국	10,000
송방선	5,000
송시현	5,000
송영식	5,000
송인규	10,000
송인호	5,000
신빈수	5,000
신빔선	10,000
안현성	5,000
양김석	10,000
양경신	5,000
양길욱	10,000
양승국	10,000
엄양선	5,000
오동윤	5,000
오병선	5,000
오주성	10,000
옥용호	10,000
우강빈	5,000
우광택	50,000
원형복	10,000
유방용	5,000
유병칠	5,000
유재옥	5,000
유희권	5,000
육근빔	10,000
이강찬	5,000
이경례	10,000
이금원	10,000
이기윤	5,000
이남희	5,000
이동영	5,000
이병천	10,000
이병화	10,000
이빈성	5,000
이병학	5,000
이싱언	5,000
이석순	10,000
이양재	10,000
이영내	10,000
이영수	10,000
이영화	5,000
이영휘	5,000
이용빔	10,000
이용언	10,000
이싱식	10,000
이종빈	10,000
이종성	10,000
이주형	5,000
이지용	5,000
이신닥	10,000
이창용	10,000
이순호	5,000
이한택	10,000
이항구	10,000
익산효요양병원	10,000
임규윤	5,000
임미옥	10,000
상수씰	5,000
상오식	10,000
선병희	5,000
선종반	10,000
선한순	10,000
싱광례	5,000

싱광수	5,000
싱동순	5,000
싱동학	5,000
싱병화	5,000
싱영미	5,000
싱인규	5,000
싱종원	10,000
싱신칠	5,000
싱해렬	5,000
싱희선	10,000
싱응귀	10,000
조기용	20,000
조봉관	10,000
조싱닥	10,000
조승윤	5,000
조용원	50,000
조우영	10,000
조주원	5,000
주세규	10,000
주승순	5,000
주영식	10,000
주원선	5,000
지네석	5,000
죄경미	10,000
죄규원	5,000
죄낙곤	10,000
죄봉선	5,000
죄양옥	10,000
죄용식	20,000
죄우신	20,000
죄을규	10,000
죄인엽	10,000
죄재무	10,000
죄종대	5,000
죄종칠	5,000
죄순수	10,000
닥두웅	5,000
닥병선	20,000
하종영	10,000
한싱반	10,000
한싱신	5,000
한싱칠	10,000
한기무	10,000
허귀석	10,000
허석봉	10,000
허 싱	5,000
현싱희	10,000
홍성각	10,000
홍성근	20,000
황권주	5,000
황금칠	20,000
황병규	10,000
황영승	10,000
황재택	5,000
황지승	5,000
황현택	20,000

온라인 후원

김가영	1,500
김동부	50,000
김선희	10,000
ᄂ승일	10,000
싱신양	5,000
유병종	20,800
이영칠	20,000
이유덕	20,000
이지현	5,000
싱찬율	10,000
조성욱	10,000
해피빈 29명	88,100
싸이월드 39명	7,200

3월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무아나	20,000
(주)삼성바워일렉트릭	20,000
(주)세신산업개발	100,000
(주)신두데이타통신	10,000
(주)에이스	50,000
(주)여행이야기	10,000
(주)지담종합기축사	20,000
(주)창이엔지	10,000
(주)코러스 ᄂ싱윤	100,000
(주)한얼	50,000
감복조	5,000
강경숭	20,000
강경현	10,000
강남순	10,000

강날호	10,000
강문구	30,000
강빈구	5,000
강보향	10,000
강선미	5,000
강성구	10,000
강 신	10,000
강영수	100,000
강옥경	10,000
강욱천	10,000
강익빔	10,000
강인호	100,000
강싱미	5,000
강싱음	10,000
강종석	10,000
강창식	5,000
강채원	10,000
강네임	5,000
강네호	20,000
강씰희	5,000
강혜경	10,000
고권석	20,000
고기칠	10,000
고봉규	10,000
고석주	10,000
고세랑	10,000
고수석	10,000
고승일	20,000
고영록	10,000
고이석	30,000
고재성	10,000
고싱화	10,000
고희김	10,000
공은영	10,000
곽인칠	10,000
구국무	10,000
구수영	10,000
구영주	10,000
구은경	10,000
구종무	10,000
권병오	10,000
권보미	10,000
권숙희	5,000
권승언	10,000
권오구	30,000
권오근	20,000
권오윤	10,000
권지숙	20,000
권혁수	30,000
권혁수	60,000
권현무	5,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금강LEB	50,000
금휘식	30,000
길기관	10,000
김김식	30,000
김강빈	30,000
김강윤	10,000
김경덕	10,000
김경재	10,000
김관식	20,000
김광식	10,000
김광아	20,000
김광신	10,000
김구칠	10,000
김구현	10,000
김근우	30,000
김금순,이호순	50,000
김금예	5,000
김금평	25,000
김기용	30,000
김기원	10,000
김기은	50,000
김기판	10,000
김길자	20,000
김길칠	5,000
김나홍	5,000
김 딩	10,000
김대관	10,000
김대영	10,000
김덕수	10,000
김두규	20,000
김두식	10,000
김두종	20,000
김두형	10,000
김동광	10,000
김동규	10,000
김동근	10,000
김동현	10,000
김동화	30,000
김두윤	20,000
김반수	20,000
김반신	5,000

김반네	5,000
김뱅기	10,000
김병언	10,000
김병호	30,000
김무홍	10,000
김미수	10,000
김빈성	10,000
김빈영	10,000
김빈제	10,000
김빈주	10,000
김방규	10,000
김병구	5,000
김병규	10,000
김병수	10,000
김병순	50,000
김보언	5,000
김봉규	10,000
김삼수	5,000
김싱근	20,000
김싱길	10,000
김싱빔	30,000
김싱식	10,000
김싱운	5,000
김석신	10,000
김석향	50,000
김선병	5,000
김설자	10,000
김성렬	10,000
김성봉	40,000
김성오	10,000
김성원	10,000
김성재	20,000
김성칠	10,000
김성희	5,000
김세권	5,000
김수경	10,000
김순옥	10,000
김순이	10,000
김순응	10,000
김승권	10,000
김신희	10,000
김양수	10,000
김언숙	30,000
김영무	20,000
김영미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숙	10,000
김영실	20,000
김영주	10,000
김영표	10,000
김영호	5,000
김옥영	10,000
김완배	20,000
김용덕	30,000
김용희	5,000
김우영	20,000
김우선	20,000
김원국	10,000
김유경	5,000
김유기	10,000
김은경	10,000
김은경	3,000
김은경	3,000
김은영	3,000
김은성	5,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응싱	10,000
김의곤	10,000
김인선	10,000
김일성	100,000
김상언	5,000
김상윤	10,000
김재광	5,000
김재옥	5,000
김재칠	10,000
김재혁	10,000
김재호	10,000
김 싱	10,000
김싱미	10,000
김싱수	5,000
김싱순	10,000
김싱화	30,000
김싱응	10,000
김종김	10,000
김종구	5,000
김종구	10,000
김종문	20,000
김종순	10,000
김종식	30,000
김종헌	10,000
김종혁	10,000
김주영	50,000
김주네	5,000
김주학	20,000

김주호	30,000
김순무	10,000
김순석	20,000
김순현	100,000
김숭수	10,000
김숭영	200,000
김숭호	30,000
김신경	10,000
김신백	10,000
김신현	10,000
김신현	9,000
김창곤	10,000
김창언	10,000
김네석	10,000
김네순	20,000
김네우	10,000
김하경	10,000
김학신	10,000
김학신	10,000
김해숭	5,000
김 현	50,000
김현성	10,000
김현순	30,000
김현신	10,000
김현칠	10,000
김현희	10,000
김형재	400,000
김혜순	10,000
김호일	20,000
김홍신	10,000
김화네	10,000
김효성	10,000
김희숭	10,000
나병반	10,000
나선길	10,000
나원언	20,000
나은우	20,000
남기순	5,000
남싱돈	10,000
남세현	5,000
남상현	10,000
ᄂ관숙	5,000
ᄂ금호	10,000
ᄂ인선	20,000
ᄂ싱화	20,000
ᄂ제승	10,000
ᄂ순봉	5,000
ᄂ형례	10,000
두재영	10,000
류병욱	10,000
류용성	5,000
류이근	10,000
류재윤	10,000
류주현	5,000
류현선	10,000
류화자	10,000
목주승	5,000
무기병	60,000
무기병	10,000
문경순	5,000
문근영	5,000
문근재	5,000
문미영	5,000
문병혁	5,000
문성권	10,000
문영식	5,000
문용식	10,000
문은칠	10,000
문재석	20,000
문종용	10,000
문홍주	10,000
빈여경	10,000
빈현주	10,000
박김식	10,000
박기호	20,000
박남용	50,000
박덕선	10,000
박덕화	10,000
박동우	5,000
박동호	50,000
박무영	10,000
박문식	30,000
박미란	10,000
박미화	10,000
박빈선	50,000
박병무	10,000
박병선	30,000
박병우	10,000
박복영	10,000
박싱욱	50,000
박싱일	20,000
박싱현	10,000
박선숙	5,000
박성순	10,000
박성찬	10,000

박수희	10,000
박 순	10,000
박순성	10,000
박애스디	50,000
박영곤	10,000
박영근	20,000
박영칠	10,000
박요순	10,000
박용권	20,000
박우경	10,000
박원규	10,000
박은하	5,000
박의용	10,000
박인숙	10,000
박일수	5,000
박재묵	10,000
박재원	10,000
박싱근	50,000
박싱숙	10,000
박싱자	10,000
박종길	10,000
박종록	10,000
박종미	5,000
박종유	20,000
박주현	5,000
박지용	15,000
박신권	10,000
박징자	20,000
박찬호	10,000
박형근	10,000
박형숭	10,000
박혜영	50,000
박희순	10,000
박희유	10,000
반지빔	10,000
밝은세싱	20,000
밝은세싱	10,000
방양수	10,000
방재반	5,000
방순일	10,000
배대화	10,000
배동웅	10,000
배병용	10,000
배수영	20,000
배은혜	5,000
배향란	20,000
백낙서	10,000
백재구	20,000
백학순	5,000
변선애	10,000
변신옥	5,000
산과들농수산	12,084,978
서광호	10,000
서기원	30,000
서남주	10,000
서동구	5,000
서동화	20,000
서병호	10,000
서성길	10,000
서영학	10,000
선영숙	5,000
싱낙순	5,000
수레택스박이화	10,000
손경임	10,000
손경화	10,000
손광우	20,000
손덕현	20,000
손영주	10,000
손신잭	10,000
송날룡	10,000
송두헌	30,000
송병석	10,000
송싱용	10,000
송싱유	10,000
송선주	10,000
송영완	10,000
송운학	20,000
송재석	10,000
송재은	1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송싱배	10,000
송싱호	10,000
송지선	10,000
송현네	30,000
신기호	10,000
신기윤	10,000
신대걸	10,000
신동석	10,000
신동해	5,000
신싱무	5,000
신수억	10,000
신순임	5,000

신용칠	10,000
신은경	10,000
신순석	10,000
신신현	10,000
신신호	20,000
신칠호	10,000
신현창	10,000
신홍수	20,000
심경란	20,000
심말선	10,000
심숭식	10,000
심현주	10,000
안병일	10,000
안병화	20,000
안싱화	5,000
안세봉	20,000
안승자	10,000
안영숙	5,000
안싱덕	5,000
안종금	5,000
안종줌	5,000
안순싱	40,000
안형재	100,000
양근성	10,000
양문수	10,000
양미아	20,000
양미화	5,000
양순화	10,000
양우성	10,000
양유싱	2,000
양인보	20,000
양주용	10,000
양신선	5,000
양씰복	10,000
양해순	10,000
어용칠	5,000
엄기칠	10,000
엄용수	20,000
엄동현	10,000
엄칠	30,000
영농조합법인무광축산	50,000
오경일	20,000
오게화	10,000
오두영	10,000
오반순	30,000
오문택	50,000
오선언	5,000
오성수	20,000
오세호	10,000
오수형	30,000
오옥자	5,000
오싱원 회상	50,000
오싱신	20,000
오창욱	10,000
오순희	10,000
오형석	20,000
오혜근	5,000
왕싱찬	5,000
왕신호	10,000
우문식	3,000
우성호	10,000
우종호	10,000
우혜신	5,000
원동오	10,000
원종남	10,000
원효신	10,000
유남길	20,000
유병희	5,000
유성식	10,000
유승칠	10,000
유시빈	10,000
유원희	10,000
유유숙	5,000
유인숙	10,000
유재언	10,000
유종국	10,000
유종석	10,000
유지수	8,500
유신싱	10,000
유평종	10,000
유한선	20,000
유기영	5,000
유광운	5,000
유남희	10,000
유두희	5,000
유두형	10,000
유미화	10,000
유방원	30,000
유병현	10,000
유서영	5,000
유송림	50,000
유수신	20,000
유영복	5,000
유재희	10,000

유종식	10,000
유종원	10,000
유창섭	10,000
유창원	10,000
유창하	10,000
유효칠	20,000
이강기	50,000
이강희	5,000
이경미	5,000
이경재	10,000
이경희	10,000
이광재	10,000
이국림	5,000
이규봉	10,000
이규호	10,000
이근덕	30,000
이근배	10,000
이근택	60,000
이근행	10,000
이금수	20,000
이기원	10,000
이기호	10,000
이기화	10,000
이길호	5,000
이남재	5,000
이남칠	5,000
이대식	10,000
이대호	10,000
이동석	20,000
이동선	10,000
이동영	10,000
이동호	10,000
이병수	5,000
이목희	10,000
이무칠	20,000
이미례	5,000
이빈싱	10,000
이빈영	10,000
이병교	10,000
이싱재	10,000
이싱학	10,000
이싱윤	10,000
이석우	10,000
이 선	10,000
이선규	10,000
이선주	10,000
이선호	5,000
이성주	10,000
이성주	10,000
이성칠	10,000
이성호	5,000
이세순	20,000
이숙자	5,000
이숙희	5,000
이승곤	20,000
이승반	10,000
이승영	20,000
이승우	10,000
이승현	20,000
이아미	10,000
이애희	20,000
이언하	5,000
이영보	10,000
이영주	10,000
이옥순	10,000
이왕규	10,000
이용규	10,000
이용석	10,000
이용암	5,000
이운학	10,000
이운화	10,000
이원빈	5,000
이원보	10,000
이원욱	5,000
이유화	10,000
이은싱	10,000
이응세	10,000
이인덕	10,000
이인배	20,000
이인수	10,000
이일선	5,000
이일영	50,000
이상백	20,000
이상욱	5,000
이상원	5,000
이재학	10,000
이재희	5,000
이싱수	10,000
이싱숙	10,000
이싱식	50,000
이싱주	10,000
이싱현	10,000
이싱희	5,000
이종권	20,000
이종병	10,000

이종무	10,000
이종빈	10,000
이종석	30,000
이종안	20,000
이종열	20,000
이종주	5,000
이주칠	20,000
이순동	10,000
이순희	10,000
이지영	5,000
이지영	10,000
이지원	20,000
이지하	5,000
이신권	10,000
이신숙	5,000
이지남	10,000
이찬우	10,000
이찬웅	10,000
이창재	10,000
이중묵	5,000
이지석	3,000
이씰원	10,000
이현석	10,000
이현숙	5,000
이현우	20,000
이현주	20,000
이혜란	5,000
이혜옥	10,000
이혜원	10,000
이혜싱	5,000
이홍돈	10,000
이홍순	20,000
이황복	20,000
이회택	50,000
이효선	5,000
이희원	5,000
이희종	5,000
임기재	10,000
임광호	30,000
임동권	10,000
임미자	5,000
임병성	10,000
임병수	20,000
임병칠	10,000
임싱원	20,000
임석재	10,000
임선영	10,000
임성수	10,000
임세신	10,000
임완빈	20,000
임인기	10,000
임상원	5,000
임재빈	10,000
임싱애	10,000
임종석	30,000
임종해	10,000
상광순	10,000
상길수	5,000
상문호	5,000
상빈화	30,000
상사익	10,000
상선영	10,000
상순천	10,000
상영날	30,000
상영순	10,000
상용윤	10,000
상원석	10,000
상유경	10,000
상유신	5,000
상재영	10,000
선날수	10,000
선미란	5,000
선병네	10,000
선성관	10,000
선영미	10,000
선영일	10,000
선용운	10,000
선일순	10,000
선싱수	10,000
선싱희	5,000
선채남	10,000
선혜린	5,000
선 윤	5,000
싱경남	10,000
싱경옥	3,000
싱경윤	10,000
싱광언	100,000
싱근영	10,000
싱기석	5,000
싱기언	20,000
싱대영	30,000
싱두빈	10,000
싱란아	10,000
싱병순	20,000
싱미란	10,000

회비납부명단

정민 5,000
정상무 10,000
정석만 10,000
정성윤 10,000
정수근 10,000
정연실 10,000
정연웅 10,000
정연순 10,000
정연호 20,000
정영기 10,000
정영철 10,000
정예리 10,000
정원오 10,000
정은신 10,000
정의화 20,000
정인성 10,000
정재민 10,000
정재원 10,000
정재환 250,000
정정태 10,000
정종현 10,000
정주영 5,000
정지현 10,000
정진영 10,000
정진옥 10,000
정찬광 10,000
정천우 10,000
정한성 5,000
정해문 10,000
정홍정 10,000
정회범 10,000
조길식 10,000
조반용 5,000
조매경 5,000
조병재 5,000
조석희 10,000
조선영 10,000
조선옥 10,000
조성규 10,000
조성숙 10,000
조성호 20,000
조신행 5,000
조연희 5,000
조영구 5,000
조영정 10,000
조영석 10,000
조영식 10,000
조용신 10,000
조용학 10,000
조 유 5,000
조유곤 10,000
조재호 10,000
조정순 10,000
조순혁 10,000
조숭식 10,000
조창식 10,000
조태현 5,000
조한민 10,000
조한범 10,000
조 현 5,000
조현호 20,000
조형순 20,000
주관수 10,000
주모미 5,000
주서용 10,000
주재열 10,000
주현기 10,000
주회옥 5,000
지선경 5,000
지용수 50,000
진정호 10,000
진파랑 10,000
지익수 10,000
지현애 10,000
창제한의원 100,000
채병칠 10,000
채현숙 5,000
천봉실 10,000
천정배 15,000
최경인 10,000
최범신 50,000
최병륜 10,000
최병희 20,000
최정구 10,000
최세문 20,000
최수신 5,000
최순옥 10,000
최승렬 10,000
최승호 10,000
최승호 10,000
최영림 10,000
최영순 5,000
최영희 10,000
최우정 10,000
최유식 5,000

최은서 5,000
최정길 30,000
최정희 10,000
최칠영 10,000
최태자 5,000
최현숙 10,000
포항수산(자) 이응대 20,000
하미정 10,000
하승창 20,000
한강아 3,000
한경숙 10,000
한덕선 20,000
한덕희 15,000
한동휘 30,000
한두희 10,000
한방남 10,000
한정각 10,000
한정규 5,000
한성희 5,000
한순호 5,000
한승엽 10,000
한유구 10,000
한인숙 5,000
한정화 10,000
한진옥 5,000
한창현 5,000
함용운 5,000
허양선 10,000
허원종 10,000
허은이 10,000
허 일 10,000
허효일 10,000
현순복 5,000
현유숙 10,000
현유식 10,000
현유실 10,000
현유애 10,000
현종유 40,000
호영신 15,000
홍구표 30,000
홍기호 10,000
홍관희 5,000
홍변기 10,000
홍병석 5,000
홍미옥 30,000
홍정운 5,000
홍성기 10,000
홍성복 10,000
홍숙희 20,000
홍원식 20,000
홍은미 5,000
홍 의 10,000
홍제표 10,000
홍순석 10,000
홍지흔 10,000
황계연 100,000
황대철 10,000
황병실 10,000
황병태 10,000
황성주 30,000
황재성 10,000
황창규 10,000
JIN HONGMEI 5,000
LGCNS(2월) 561,000

볼고그라드

강대규 10,000
금동원 30,000
김선경 10,000
김재기 10,000
나선경 5,000
박기영 10,000
박인순 20,000
방철호 20,000
서봉규 5,000
신혜정 10,000
심허용 10,000
이동현 10,000
이수원 10,000
이한결 10,000
정경련 10,000
정극칠 10,000
홍상현 10,000

아동급식

강대현 20,000
권영운 20,000
김만호 20,000
김연욱 30,000
김정미 10,000
김정은 10,000
김태평 10,000
김현수 5,000

문주성 10,000
박정일 10,000
박재완 60,000
방현옥 10,000
서희순 10,000
양 권 20,000
유연미 10,000
이덕민 50,000
이병신 10,000
이정미 10,000
이정학 20,000
장범식 10,000
정동혁 10,000
정성희 5,000
정수순 5,000
조은정 30,000
조정아 20,000
진관스님 5,000
현종스님 10,000
환성스님 50,000
박정숙 30,000
한국생협연합회 5,113,000
한국화해연구원 80,000

룡천육아원

(유)병기설 1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유)스마일기획건설 20,000
강동혁 5,000
강병수 10,000
강신우 5,000
강철희 10,000
강태순 20,000
강혜영 5,000
고영삼 5,000
고진규 10,000
곽영학 10,000
구 혁 5,000
권의정 10,000
권태영 10,000
권형렬 5,000
김강희 5,000
김기태 5,000
김경녀 10,000
김봉련 5,000
김 구 10,000
김규진 5,000
김근순 10,000
김기곤 5,000
김기동 10,000
김대기 10,000
김동림 20,000
김동우 50,000
김두환 10,000
김문혁 10,000
김봉규 10,000
김삼택 5,000
김서리 5,000
김성두 10,000
김성태 10,000
김수경 10,000
김수복 10,000
김승환 5,000
김안나 5,000
김영규 20,000
김영균 5,000
김영근 10,000
김영윤 10,000
김완수 10,000
김용주 10,000
김은재 10,000
김응곤 10,000
김인기 10,000
김재순 5,000
김재홍 10,000
김정기 10,000
김정인 10,000
김종비 5,000
김종성 10,000
김종열 5,000
김종왕 5,000
김종찬 5,000
김진관 20,000
김진태 10,000
김창영 10,000
김태환 5,000
김혁제 10,000
김형순 20,000
김호식 10,000
남궁진석 5,000
남정기 10,000

남정강 10,000
류재석 5,000
류희웅 10,000
문용식 5,000
문철성 5,000
문태환 5,000
민중기 10,000
박귀순 10,000
박만승 10,000
박미라 5,000
박미숙 10,000
박미영 20,000
박봉수 10,000
박용수 5,000
박용주 5,000
박유선 10,000
박유윤 10,000
박인곤 10,000
박종선 10,000
박종호 20,000
박종호 10,000
박주환 5,000
박 찬 10,000
박찬민 10,000
박찬식 5,000
박태신 10,000
박응열 10,000
배동한 10,000
배선규 10,000
배성희 20,000
빙인섭 5,000
석정근 10,000
성두경 5,000
손병재 5,000
손삼국 10,000
송방섭 5,000
송시현 5,000
송영식 5,000
송인규 10,000
송인호 5,000
신민수 5,000
신범선 10,000
안현성 5,000
양경신 5,000
양길욱 10,000
엄양선 5,000
오동윤 5,000
오병선 5,000
오주성 10,000
옥용호 10,000
우광택 50,000
원형복 10,000
유방용 5,000
유병칠 5,000
유재옥 5,000
유향덕 5,000
유희권 5,000
육근범 10,000
이강찬 5,000
이경례 10,000
이기윤 5,000
이남희 5,000
이동영 5,000
이병환 10,000
이민성 5,000
이병학 5,000
이석순 10,000
이양재 10,000
이연주 10,000
이영내 10,000
이영수 10,000
이영환 5,000
이영휘 5,000
이용범 10,000
이정식 10,000
이종민 10,000
이종성 10,000
이지용 5,000
이진덕 10,000
이창용 10,000
이순삼 10,000
이순호 5,000
이항구 10,000
이현숙 10,000
익산효요양병원 10,000
임규유 5,000
임미옥 10,000
장수실 5,000
장오식 10,000
전기철 5,000
전병희 5,000
전종만 10,000
전한순 10,000
정광례 5,000

정광수 5,000
정기운 5,000
정동순 5,000
정동학 5,000
정영미 5,000
정종원 20,000
정종원 10,000
정진철 5,000
정해렬 5,000
정회선 10,000
정응귀 10,000
조기용 20,000
조봉관 10,000
조성탁 10,000
조승윤 5,000
조용원 50,000
조우영 10,000
조주원 5,000
조지현 5,000
주세규 50,000
주승순 5,000
주영식 10,000
주원선 5,000
지태석 5,000
지규화 5,000
최경미 10,000
최규원 5,000
최낙곤 10,000
최봉선 5,000
최양옥 10,000
최영자 10,000
최영재 5,000
최용식 20,000
최우신 20,000
최을규 10,000
최인엽 10,000
최재무 10,000
최종대 5,000
최종칠 5,000
최순수 10,000
탁두웅 5,000
탁병선 20,000
하종영 10,000
한정만 10,000
한정신 5,000
한정철 10,000
함기문 10,000
허귀석 10,000
허석봉 10,000
허 정 5,000
현정희 10,000
홍성각 10,000
홍성근 20,000
황권주 5,000
황금칠 20,000
황병규 10,000
황재택 5,000
황현택 20,000

온라인 후원

김동부 50,000
김민성 10,000
김선희 10,000
노승일 10,000
문정숙 1,000
이영칠 20,000
이유덕 20,000
이지현 5,000
정찬율 10,000
최신원 10,000
해피빈 381명 287,500
싸이월드 93명 41,900

4월

(주)고려정보통신 2,400,000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무아나 20,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20,000
(주)세신산업개발 100,000
(주)신도데이타통신 10,000
(주)에이스 50,000
(주)여행이야기 1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주)창대산업 50,000
(주)창이엔지 10,000
(주)코러스 노정윤 100,000
(주)한얼 50,000
강복조 5,000
강경숭 20,000
강경헌 10,000
강남순 10,000
강문구 30,000
강보향 10,000
강선미 5,000
강성구 10,000
강순기 10,000
강 신 10,000
강영주 100,000
강옥경 10,000
강육천 10,000
강원호 20,000
강익범 10,000
강인호 100,000
강정미 5,000
강정음 10,000
강종석 10,000
강창식 5,000
강채원 10,000
강태임 5,000
강태호 20,000
강필희 5,000
강현주 10,000
강혜경 10,000
고권석 20,000
고기칠 10,000
고봉규 10,000
고석주 10,000
고수석 10,000
고승일 20,000
고영록 10,000
고이석 30,000
고재성 10,000
고정환 10,000
고회길 10,000
공은영 10,000
곽인칠 10,000
구국무 10,000
구수영 10,000
구영주 10,000
구은경 10,000
구종무 10,000
권병오 10,000
권보미 10,000
권숙희 5,000
권승연 10,000
권오근 20,000
권오윤 10,000
권지숙 20,000
권지현 10,000
권현무 5,000
권현신 1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금강LED 50,000
금휘식 30,000
길기관 10,000
김길수 10,000
김길식 30,000
김강민 30,000
김강윤 10,000
김경덕 10,000
김경재 10,000
김관식 20,000
김광식 10,000
김광아 20,000
김광신 10,000
김구칠 10,000
김구현 10,000
김근우 30,000
김금순,이오순 50,000
김금예 5,000
김금평 25,000
김기용 30,000
김기원 10,000
김기은 50,000
김길자 20,000
김길칠 5,000
김나홍 5,000
김 딩 10,000
김대관 10,000
김대성 30,000
김대영 10,000
김덕수 10,000
김두규 20,000
김두식 10,000
김두종 20,000
김동광 10,000
김동근 10,000
김동현 10,000

김동환 30,000
김두윤 20,000
김만수 20,000
김만신 5,000
김만태 5,000
김맹기 10,000
김병언 10,000
김병호 30,000
김무홍 10,000
김미수 10,000
김민성 10,000
김민제 10,000
김방규 10,000
김병구 5,000
김병규 10,000
김병수 10,000
김병순 50,000
김보연 5,000
김봉균 10,000
김삼수 5,000
김정근 20,000
김정길 10,000
김정범 30,000
김정식 10,000
김정운 5,000
김석신 10,000
김석향 50,000
김선명 5,000
김선희 10,000
김설자 10,000
김성봉 40,000
김성오 10,000
김성원 10,000
김성재 20,000
김성철 10,000
김성희 5,000
김세권 5,000
김수희 10,000
김수경 10,000
김순옥 10,000
김순이 10,000
김순학 10,000
김순응 10,000
김승권 10,000
김신희 10,000
김양수 10,000
김연숙 30,000
김영무 20,000
김영미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숙 10,000
김영실 20,000
김영주 10,000
김영표 10,000
김영호 5,000
김옥영 10,000
김완배 20,000
김용덕 30,000
김용연 10,000
김용희 5,000
김우영 20,000
김원구 10,000
김유경 5,000
김유기 10,000
김유신 10,000
김유신 10,000
김은경 10,000
김은경 3,000
김은영 3,000
김은정 5,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응정 10,000
김의곤 10,000
김인서 10,000
김일성 100,000
김장연 5,000
김장윤 10,000
김재광 5,000
김재옥 5,000
김재칠 10,000
김재혁 10,000
김재호 10,000
김 정 10,000
김정미 10,000
김정순 10,000
김정환 30,000
김정응 10,000
김종구 5,000
김종구 10,000
김종문 20,000
김종순 10,000
김종식 30,000
김종현 10,000
김종혁 10,000

김종윤 10,000
김주영 50,000
김주학 20,000
김주호 30,000
김순무 10,000
김순석 20,000
김순현 100,000
김숭수 10,000
김숭호 30,000
김진경 10,000
김진백 10,000
김진현 10,000
김진현 9,000
김창곤 10,000
김창연 10,000
김태석 10,000
김태순 20,000
김태우 10,000
김학신 10,000
김학신 10,000
김해숭 5,000
김 현 50,000
김현성 10,000
김현주 10,000
김현순 30,000
김현신 10,000
김현칠 10,000
김현희 10,000
김형재 30,000
김혜순 10,000
김혜종 10,000
김호순 20,000
김호일 20,000
김홍신 10,000
김효정 10,000
김희숭 10,000
나병만 10,000
나선길 10,000
나원연 20,000
나은우 20,000
나종문 20,000
남정돈 10,000
남세현 5,000
남상현 10,000
노관숙 5,000
노금호 10,000
노인선 20,000
노정환 20,000
노제승 10,000
노순봉 5,000
노형례 10,000
농산교회 120,000
대우트레이딩 100,000
도재영 10,000
동이마을교회 20,000
류병욱 10,000
류용성 5,000
류이근 10,000
류재윤 10,000
류주현 5,000
류현선 10,000
목주승 5,000
문경순 5,000
문근영 5,000
문근재 5,000
문미영 5,000
문병혁 5,000
문성권 10,000
문영식 5,000
문용식 10,000
문재석 20,000
문정호 10,000
문종용 10,000
문홍주 10,000
민여경 10,000
민현주 10,000
박기식 10,000
박기호 20,000
박남용 50,000
박덕선 10,000
박덕환 10,000
박동우 5,000
박동호 50,000
박무영 10,000
박무식 30,000
박미란 10,000
박미화 10,000
박민선 50,000
박병무 10,000
박병선 30,000
박병우 10,000
박복영 10,000
박정욱 50,000
박정일 20,000

박선숙 5,000
박성기 20,000
박성순 10,000
박성찬 10,000
박수희 10,000
박 순 10,000
박순성 10,000
박애스더 50,000
박영근 20,000
박영칠 10,000
박요순 10,000
박용권 20,000
박우경 10,000
박원규 10,000
박은하 5,000
박의용 10,000
박이환 10,000
박인숙 10,000
박일수 5,000
박재묵 10,000
박재원 10,000
박정근 50,000
박정숙 10,000
박정자 10,000
박종길 10,000
박종록 10,000
박종유 20,000
박주현 5,000
박지용 15,000
박징자 20,000
박찬호 10,000
박지관 10,000
박형근 10,000
박형숭 10,000
박혜영 50,000
박희유 10,000
반지범 10,000
밝은세상 10,000
방양수 10,000
방재만 5,000
방순일 10,000
배대환 10,000
배동웅 10,000
배병용 10,000
배은혜 5,000
배향란 20,000
백낙서 10,000
백재구 20,000
백학순 5,000
변선애 10,000
변신옥 5,000
산과들농수산 17,819,335
서광호 10,000
서기원 30,000
서남주 10,000
서동구 5,000
서동화 20,000
서병호 10,000
서봉은 5,000
서성길 10,000
서영학 10,000
서정숙 10,000
선영숙 5,000
성낙순 5,000
손경임 10,000
손경환 10,000
손광우 20,000
손덕현 20,000
손영주 10,000
손신적 10,000
송경민 20,000
송날룡 10,000
송두헌 30,000
송병석 10,000
송정용 10,000
송정유 10,000
송서주 10,000
송영완 10,000
송우학 20,000
송재은 1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송정배 10,000
송정호 10,000
송지선 10,000
송태규 10,000
송현태 30,000
신기윤 10,000
신대걸 10,000
신동석 10,000
신동해 5,000
신정문 5,000
신수길 10,000
신수억 10,000

신순임 5,000
신용칠 10,000
신은경 10,000
신순석 10,000
신신현 10,000
신신호 20,000
신철호 10,000
신현창 10,000
신홍수 20,000
심경란 20,000
심말선 10,000
심숭식 10,000
심항정 10,000
심현주 10,000
안병일 10,000
안병화 20,000
안정화 5,000
안세봉 20,000
안승자 10,000
안영숙 5,000
안정덕 5,000
안정윤 5,000
안종금 5,000
안종줄 5,000
안순정 40,000
안형재 100,000
양근성 10,000
양무수 10,000
양미아 20,000
양미화 5,000
양우성 10,000
양유정 2,000
양인보 20,000
양주용 10,000
양신서 5,000
양필복 10,000
양해순 10,000
어용칠 5,000
엄기칠 10,000
엄용수 20,000
염동현 10,000
염칠 30,000
영농조합법인무광축산 50,000
오경일 20,000
오계환 10,000
오두영 10,000
오만순 30,000
오문택 50,000
오선연 5,000
오성수 20,000
오세호 10,000
오수경 5,000
오수형 30,000
오옥자 5,000
오정원 회장 50,000
오정신 30,000
오창욱 10,000
오순희 10,000
오형석 20,000
오혜근 5,000
왕정찬 5,000
왕신호 10,000
우성호 10,000
우종호 10,000
우혜신 5,000
원동오 10,000
원종남 10,000
원효신 10,000
유남길 20,000
유병희 5,000
유성식 10,000
유승주 50,000
유승칠 10,000
유시민 10,000
유원희 10,000
유유숙 5,000
유인숙 10,000
유재연 10,000
유종구 10,000
유종석 10,000
유지수 8,500
유신정 10,000
유평종 10,000
유한선 20,000
유기영 5,000
유광운 5,000
유남희 10,000
유두희 5,000
유두형 10,000
유미화 10,000
유방원 30,000
유병현 10,000
유서영 5,000
유송림 50,000

유수신 20,000
유영복 5,000
유재희 10,000
유종식 10,000
유종원 10,000
유종칠 10,000
유창선 10,000
유창원 10,000
유창하 10,000
유효칠 20,000
이강기 50,000
이강희 5,000
이경미 5,000
이경재 10,000
이경희 10,000
이국림 5,000
이규봉 10,000
이규호 10,000
이근덕 30,000
이근태 10,000
이근택 60,000
이근행 10,000
이금수 20,000
이기원 10,000
이기호 10,000
이기화 10,000
이길호 5,000
이남재 5,000
이남칠 5,000
이대식 10,000
이대호 10,000
이동선 10,000
이동영 10,000
이동원 10,000
이동호 10,000
이병수 5,000
이목희 10,000
이무칠 20,000
이미례 5,000
이민정 10,000
이민영 10,000
이병교 10,000
이정복 500,000
이정재 10,000
이정학 10,000
이정윤 10,000
이석우 10,000
이 선 10,000
이선규 10,000
이선주 10,000
이선호 5,000
이성주 10,000
이성주 10,000
이성칠 10,000
이성호 5,000
이세순 20,000
이숙자 5,000
이숙희 5,000
이순칠 10,000
이승곤 20,000
이승만 10,000
이승영 20,000
이승우 10,000
이승우 20,000
이승현 20,000
이애희 20,000
이연하 5,000
이영주 10,000
이옥순 10,000
이왕규 10,000
이용규 10,000
이용석 10,000
이용암 5,000
이우학 10,000
이원민 5,000
이원보 10,000
이원욱 5,000
이유정 5,000
이유환 10,000
이은정 10,000
이응세 10,000
이인덕 10,000
이인배 20,000
이인수 10,000
이일선 5,000
이일영 50,000
이장백 20,000
이장욱 5,000
이장원 5,000
이재학 10,000
이재희 5,000
이정민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숙 10,000
이정식 50,000

이정주 10,000
이정현 10,000
이정희 5,000
이종권 20,000
이종병 10,000
이종무 10,000
이종석 30,000
이종안 20,000
이종열 20,000
이종주 5,000
이주칠 30,000
이순동 10,000
이순희 10,000
이지영 5,000
이지영 10,000
이지원 20,000
이지하 5,000
이진권 10,000
이진숙 5,000
이지남 10,000
이찬우 10,000
이찬웅 10,000
이창재 10,000
이중묵 5,000
이지석 3,000
이필원 10,000
이현경 10,000
이현석 10,000
이현숙 5,000
이현우 20,000
이현주 20,000
이혜란 5,000
이혜옥 10,000
이혜원 10,000
이혜정 5,000
이홍돈 10,000
이홍순 20,000
이황복 20,000
이회택 50,000
이효선 5,000
이회원 5,000
이회종 5,000
임광호 30,000
임동권 10,000
임미자 5,000
임병성 10,000
임병수 20,000
임병칠 10,000
임정원 20,000
임선영 10,000
임성수 10,000
임세신 10,000
임완민 20,000
임인기 10,000
임장원 5,000
임재민 10,000
임정애 10,000
임종석 30,000
임종해 10,000
임순수 20,000
장광순 10,000
장길수 5,000
장문호 5,000
장민환 30,000
장사익 10,000
장선영 10,000
장순천 10,000
장영날 30,000
장영순 10,000
장용윤 10,000
장원석 10,000
장유신 5,000
장재영 10,000
전날수 10,000
전미란 5,000
전병태 10,000
전성관 10,000
전성희 10,000
전애숙 10,000
전영미 10,000
전영일 10,000
전용운 10,000
전일순 10,000
전정수 10,000
전정희 5,000
전채남 10,000
전향이 10,000
전혜린 5,000
전 윤 5,000
정경남 10,000
정경옥 3,000
정경화 5,000
정경윤 10,000
정광연 100,000
정근영 10,000

정기석 5,000
정기연 20,000
정대영 30,000
정두민 10,000
정미란 10,000
정미영 10,000
정 민 5,000
정상무 10,000
정석만 10,000
정성윤 10,000
정수현 5,000
정연실 10,000
정연웅 10,000
정연순 10,000
정연호 20,000
정영기 10,000
정영칠 10,000
정예리 10,000
정원오 10,000
정은신 10,000
정의화 20,000
정인성 10,000
정재민 10,000
정재원 10,000
정재환 100,000
정정태 10,000
정종원 50,000
정종현 10,000
정주영 5,000
정지현 10,000
정진영 10,000
정진옥 10,000
정찬광 10,000
정천우 10,000
정한성 5,000
정해문 10,000
정홍정 10,000
정회범 10,000
조길식 10,000
조반용 5,000
조매경 5,000
조병재 5,000
조석희 10,000
조선영 10,000
조선옥 10,000
조성규 10,000
조성호 20,000
조신행 5,000
조연희 5,000
조영정 10,000
조영석 10,000
조영식 10,000
조용신 10,000
조용학 10,000
조 유 5,000
조유곤 10,000
조재호 10,000
조정순 10,000
조순혁 10,000
조숭식 10,000
조창식 10,000
조태현 5,000
조한민 10,000
조한범 10,000
조 현 5,000
조현호 20,000
조형순 20,000
주관수 10,000
주모미 5,000
주서용 10,000
주재열 10,000
주현기 10,000
주회옥 5,000
지선경 5,000
지용수 50,000
진정호 10,000
진성두 20,000
진파랑 10,000
지익수 10,000
지현애 10,000
창제한의원 100,000
채병칠 10,000
채현숙 5,000
천봉실 10,000
천정배 15,000
최경인 10,000
최문석 50,000
최범신 10,000
최병륜 10,000
최병희 20,000
최정구 10,000
최정윤 10,000
최세문 20,000
최수자 10,000
최수신 5,000

최순옥 10,000
최승렬 10,000
최승호 10,000
최승호 10,000
최영림 10,000
최영순 5,000
최영희 10,000
최우정 10,000
최유식 5,000
최은서 5,000
최재근 10,000
최정길 30,000
최정희 10,000
최칠영 10,000
최태자 5,000
최현숙 10,000
포항수산(자) 이응대 20,000
하미정 10,000
하승창 20,000
한강아 3,000
한경숙 10,000
한대영 10,000
한덕선 20,000
한덕희 15,000
한동휘 30,000
한두희 10,000
한방남 10,000
한정각 10,000
한정규 5,000
한성희 5,000
한순호 5,000
한승엽 10,000
한유구 10,000
한인숙 5,000
한정화 10,000
한진옥 5,000
한창현 5,000
함영순 20,000
함용운 5,000
해성보육원 100,000
허양선 10,000
허원종 10,000
허은이 10,000
허 일 10,000
허효일 10,000
현순복 5,000
현유숙 10,000
현유식 10,000
현유실 10,000
현유애 10,000
현종유 40,000
호영신 15,000
홍구표 30,000
홍기호 10,000
홍관희 5,000
홍변기 10,000
홍병석 5,000
홍미옥 30,000
홍정운 5,000
홍성기 10,000
홍성복 10,000
홍숙희 20,000
홍은미 5,000
홍 의 10,000
홍제표 10,000
홍순석 10,000
홍지흔 10,000
황계연 100,000
황대칠 10,000
황병실 10,000
황병태 10,000
황성주 30,000
황재성 10,000
황창규 10,000
JIN HONGMEI 5,000
LGCNS3월 549,000
LGCNS4월 570,000

볼고그라드

강대규 10,000
금동원 30,000
김선경 10,000
김재기 10,000
나선경 5,000
박기영 10,000
박인순 20,000
방철호 20,000
서봉규 5,000
신혜정 10,000
심허용 10,000
이동현 10,000
이한결 10,000
정경련 10,000
정극칠 10,000

회비납부명단

홍상현 10,000

아동급식
강대현 20,000
권영우 20,000
김경표 10,000
김반호 20,000
김연욱 30,000
김우종 20,000
김성미 10,000
김성은 10,000
김태평 10,000
김현수 5,000
문주성 10,000
박성일 10,000
박재완 60,000
박성숙 30,000
방현옥 10,000
백천조 5,000
서희순 10,000
설순수 5,000
심말숙 5,000
안성용 5,000
양 권 20,000
연현중학교 270,500
오승현 30,000
유연미 10,000
유엄석 5,000
이덕비 50,000
이병시 10,000
이성미 10,000
이성학 20,000
이지은 10,000
상범식 10,000
성동혁 10,000
성성희 5,000
성수순 5,000
성승열 5,000
조은실 30,000
조성아 20,000
신관스님 5,000
최양옥 5,000
한국생협연합회
5,059,000
한국화학연구원
80,000
현종스님 10,000
화성스님 50,000

룡천육아원
(유)병기설 1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유)스마일기획기설
20,000
강동혁 5,000
강병수 10,000
강신우 5,000
강철희 10,000
강태순 20,000
강혜영 5,000
고영삼 5,000
고신규 10,000
곽영한 10,000
구 혁 5,000
권의상 10,000
권태영 10,000
권형렬 5,000
김강희 5,000
김기태 5,000
김경년 10,000
김광렬 5,000
김 구 10,000
김규신 5,000
김근순 10,000
김기곤 5,000
김기동 10,000
김대기 10,000
김동림 20,000
김동우 50,000
김두환 10,000
김문혁 10,000
김봉규 10,000
김삼택 5,000
김선리 5,000
김성두 10,000
김성태 10,000
김수경 10,000
김수복 10,000
김승환 5,000
김영규 20,000
김영규 5,000
김영균 5,000
김영근 10,000
김영윤 10,000
김완수 10,000
김용주 10,000
김유철 10,000
김은재 10,000
김응곤 10,000
김인기 10,000
김재순 5,000
김재홍 10,000
김정기 10,000
김정인 10,000
김종비 5,000
김종성 10,000
김종열 5,000
김종왕 5,000
김종찬 5,000
김신관 20,000
김신태 10,000
김창영 10,000
김태환 5,000
김혁제 10,000
김형구 5,000
김형순 20,000
김호식 10,000
나성현 10,000
남궁신석 5,000
남성기 10,000
남칭강 10,000
류희웅 10,000
문용식 5,000
문태환 5,000
민종기 10,000
박귀순 10,000
박반승 10,000
박미라 5,000
박미숙 10,000
박미영 20,000
박봉수 10,000
박승선 10,000
박용수 5,000
박용주 5,000
박유선 10,000
박유윤 10,000
박인곤 10,000
박종선 10,000
박종호 10,000
박주환 5,000
박 찬 10,000
박찬비 10,000
박찬식 5,000
박태신 10,000
박응열 10,000
배동한 10,000
배선규 10,000
배성회 20,000
빙인선 5,000
석성근 10,000
성두경 5,000
성완호 5,000
수병재 5,000
손삼구 10,000
송방선 5,000
송시현 5,000
송영식 5,000
송인규 10,000
송인호 5,000
신비수 5,000
신범선 10,000
안현성 5,000
양경신 5,000
양길욱 10,000
엄양선 5,000
오병선 5,000
오주성 10,000
우강비 5,000
우광택 50,000
원형녹 10,000
유방용 5,000
유재옥 5,000
유향덕 5,000
유희권 5,000
육근빔 10,000
유엄석 10,000
이강차 5,000
이경례 10,000
이금원 10,000
이기윤 5,000
이남희 5,000
이병환 10,000
이빈성 5,000
이성언 5,000
이성순 5,000
이석순 10,000
이언주 10,000
이영내 10,000
이영수 10,000
이영숙 5,000
이영환 5,000
이영휘 5,000
이용빔 10,000
이성식 10,000
이종빈 10,000
이종성 10,000
이지용 5,000
이신닥 10,000
이창용 10,000
이순삼 10,000
이현숙 10,000
익산효요양병원
10,000
임규윤 5,000
임미옥 10,000
상수씰 5,000
상오식 10,000
선기철 5,000
선병희 5,000
선종반 10,000
선한순 10,000
성광례 5,000
성광수 5,000
성기은 5,000
성동순 5,000
성동학 5,000
성영미 5,000
성종원 20,000
성종원 10,000
성신철 5,000
성해렬 5,000
성응귀 10,000
조가원 10,000
조기용 20,000
조봉관 10,000
조성닥 10,000
조승윤 5,000
조용원 50,000
조우영 10,000
조주원 5,000
조지현 5,000
주세균 50,000
주승순 5,000
주영식 10,000
주원선 5,000
지태석 5,000
지규화 5,000
최경미 10,000
최기천 5,000
최낙곤 10,000
최양옥 10,000
최영자 10,000
최용식 20,000
최우신 20,000
최을규 10,000
최인엽 10,000
최재문 10,000
최종대 5,000
최종철 5,000
최순수 10,000
닥두웅 5,000
닥병선 20,000
하종영 10,000
한성신 5,000
한성철 10,000
한기문 10,000
허귀석 10,000
허석봉 10,000
허 성 5,000
현성희 10,000
홍성각 10,000
홍성근 20,000
황권주 5,000
황금철 20,000
황병규 10,000
황영승 10,000
황재택 5,000
황현택 20,000

우리동포
강성구 30,000
박선오 30,000
이용선 50,000
이재형 100,000

온라인 후원
김동분 50,000
김빈성 10,000
김선희 10,000
김순한 20,000
김성순 103,450
나승일 10,000
문성숙 1,000
박성철 40,000
이영철 20,000
이유덕 20,000
이지현 5,000
성찬율 10,000
최을림 50,000
최신원 10,000
해피빈 41명
1,261,000
싸이월드 62명
22,700

긴급식량 모금 (6/20까지)

신한
이동선 50,000
대외경제정책 50,000
김성윤 200,000
구영주 20,000
박순(김경옥) 100,000
고병우 5,900
송성윤 500,000
김성윤 300,000
추성윤,성우 50,000
신숭은 27,000
이용,이하림 50,000
한병철 10,000
이신경 30,000
김승석 50,000
채빈성 100,000
김성호 100,000
상빔신 10,000
최효일 10,000
카톨릭한내세요
670,000

국민
문성권 50,000
최신원 30,000
이일영 300,000
상수미 400,000
고유빈 1,000,000
나눔재단 9,000,000
고려성보통신
3,000,000
김종익 50,000
손영주 100,000
김용기 30,000
최원환 100,000
김영순 50,000
김경화 50,000
나지환 50,000
박병무 50,000
김평현 10,000
이화윤 150,000
김병신 20,000
송빈철 100,000
이황배 50,000
이영미 20,000
김미자 100,000
김금순,이오순
100,000
이방환 500,000
한성설 300,000
박수성 100,000
오희근 20,000
우동철 100,000
이기순 50,000
성성규 10,000
고창윤 200,000
이순승 30,000
뉴질랜드 80,000
이영미 32,500
상경구 10,000
구룡초등학교3-1반
70,000

농협
강욱천 20,000
성홍성 200,000
고천숙 5,000
조남성 100,000
성홍성 800,000
나대선농산한
100,000
고성일 5,000
임광호 500,000
상회익 1,000,000
신성두 100,000
사과들농수산
1,000,000
김태연 20,000
곽성란 30,000
성미순 30,000
이규반 10,000
김봉길 30,000
박회수 10,000
강문구 300,000
황인성 48,000
황대운 50,000
김기은 1,000,000
김재심 50,000
이경례 30,000
이석순 50,000
강동혁 30,000
박종호 200,000
박미숙 100,000
이종성 20,000
김대기 30,000
최양옥 100,000
닥병선 50,000
닥병선 50,000
박종호 50,000
최종호 100,000
성종원 50,000
오주성 50,000
선병희 100,000
박응열 50,000
조가원 50,000
이영휘 30,000
김형순 100,000
이성언 30,000
조기용 100,000
상용열외3 40,000
(주)세레사랑 500,000
김관식 300,000
이광로 150,000
서옥주 124,530
김종인 50,000
김성화 5,000
최귀철 5,000
최은순 5,000
최어신 5,000
박성례 30,000
문수성 20,000
서옥주 20,000

온라인 후원
고영희 200,000
곽순하 50,000
권채영 50,000
김일성 1,000,000
김성희 50,000
김종빈 28,000
나항례 200,000
박성용 100,000
박성호 10,000
서현석 10,000
손중렬 20,000
손중렬 20,000
신경희 130,000
오동기 50,000
오성근 10,000
오신경 100,000
유순성 100,000
이동하 10,000
이성우 5,000
이일우 10,000
이주성 100,000
이혜경 10,000
이홍돈 10,000
임신영 500,000
성귀란 100,000
최규성 10,000
최선호 100,000
최은희 30,000
해피빈 658명
1,106,000

새로이 함께하는 회원

일반후원자 강대영, 금동화, 금동현, 금세빈, 김경화, 김봉림, 김용화, 문성욱, 박이현, 박해영, 배인기, 백옥현, 신영식, 조은희, 윤지현, 윤설경, 이성민, 이한슬, 이현재, 한상덕, 홍성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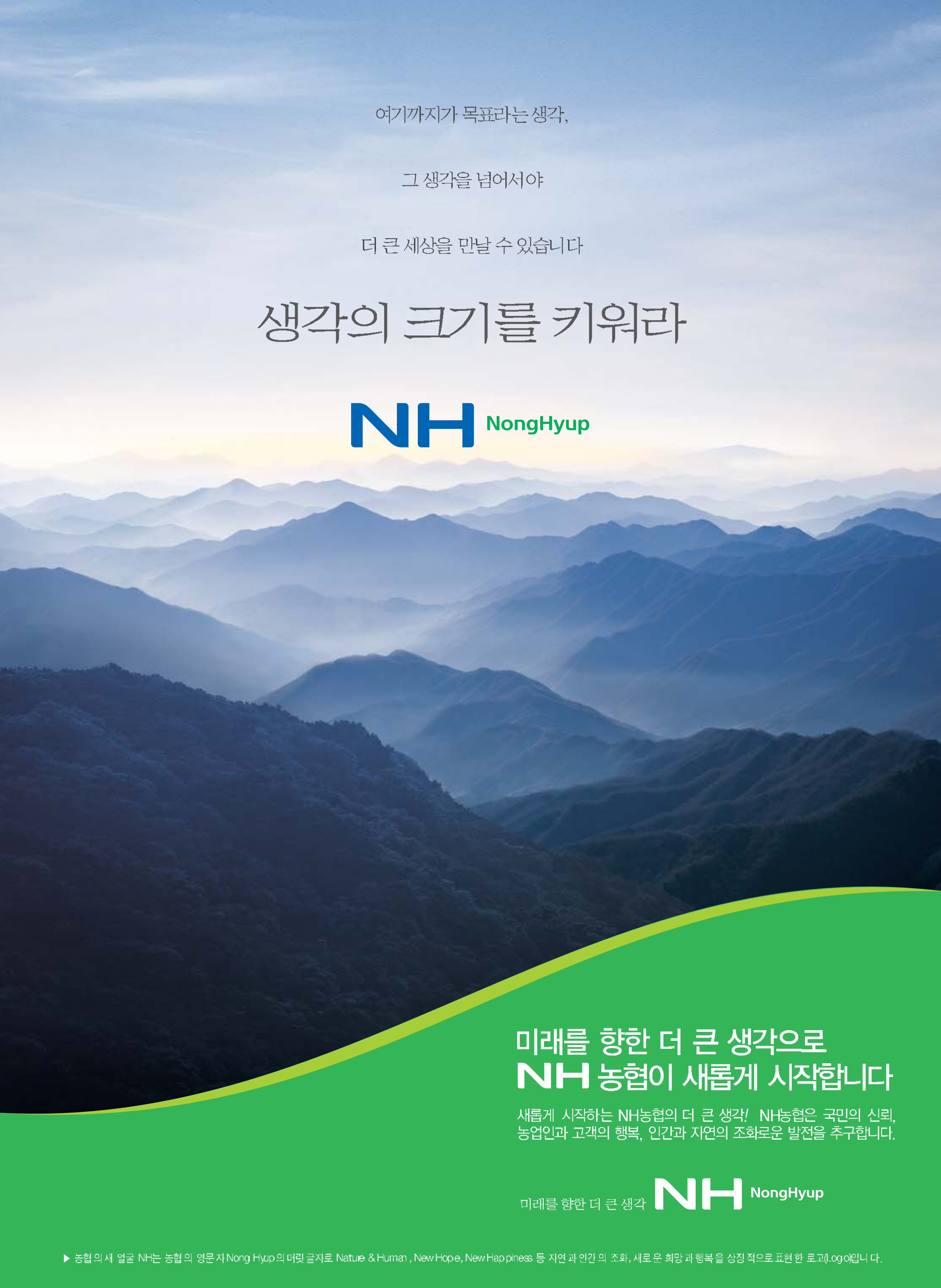
CMS 후원은 소식지 우편엽서 후원신청서의 빈칸을 채워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503-703 | 신한은행 140-002-99713 | 농협 386-01-004282
(예금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로번호 7641271

■ 친환경적인 차세대 작물보호제
■ 고품질 환경친화형 비료 · 상토
■ 첨단 생명공학의 기능성 종자
■ 안전하고 효과 높은 동물약품

동부하이텍



여기까지가 목표라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야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워라
NH NongHyup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 농협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NH농협의 더 큰 생각! NH농협은 국민의 신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 NH NongHyup
▶ 농협의 새 얼굴 NH는 농협의 영문자 Nong Hyup의 머릿 글자로 Nature & Human, New Hope, New Happiness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Logo)입니다.